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회자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CONTENTS

I. 사업개요	03
II. 진행 과정	09
1. 자문회의	
2. 파일럿 모니터링	
3. 기획자교류워크숍	
III. 에필로그	93

I. 사업 개요



여 백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 나. 기간 : 2015. 7~12월
- 다. 대상 : 경기도 지역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기획자
- 라. 주최 : 한국문화원연합회
- 마.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2. 사업목적 및 방향

- 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자간 교류 활성화와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 개최
- 나. 경기도 지역의 동사업의 향후 방향 모색과 교류네트워크 활성화
- 다. 동 사업의 지역간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시도연합회의 위상 정립 및 시스템 구축
- 라. 자문기구와 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지역기획자역량강화
- 마. 지역별, 권역별 사업추진현황과악과 동 사업의 이해도 증대를 위한 사업배치
- 바. 우수사례개발과 성과관리를 통한 동 사업의 확장 가능성 모색

3. 사업내용

- 가. 지역문화전문가자문회의 개최 (3회)
 - 1) 단위사업(일반사업, 기획사업)별 분석과 향후 방향(안) 도출
 - 2) 교류네트워크를 위한 로드맵 작성
- 나. 동 사업 기획자 교류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콜로키움 형태의 워크숍 (2회)
 - 1) 사업대상 : 동 사업 수행단체 기획자 및 대상자 1인 등 총 150명
 - 2) 추진방향
 - 가) 어르신사업 담론 생산과 정책로드맵 공유를 통한 기획자 역량 강화
 - 나) 동 사업의 내용 및 향후 방향 공유와 네트워크 파티

4. 추진일정

시기	내용	비고
5월	사업기획 및 컨셉도출 기획회의	
7월 28일	1차 자문회의	
8월 4일	2차 자문회의	
8월 10~18일	파일럿 모니터링 진행	9개 단체
8월 25일	1차 워크숍	
9월 15일	3차 자문회의	
12월 3~4일	2차 워크숍	
12월	결과 보고서 발간	

5. 기대효과

- 가. 동 사업의 일괄된 흐름으로의 전개를 통한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
- 나.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역량의 강화
- 다. 프로젝트형 기획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방문화원 위상 강화

6. 경기도지역 동사업 선정현황

No	단체명	단위 사업	사업명
1	가평	활동가	잊혀져 가는 내 고향 가평민요 우리소리
2		봉사단	푸른연인문화나눔봉사단
3		동아리	씽씽 실버무용 동아리
4	고양	활동가	고양 늘푸른인형극단
5		일자리	고양전래놀이지도단
6	과천	활동가	승승장구 난타
7		봉사단	사랑매듭나누미
8	광주	활동가	이야기 할맘 양성 “우리동네 옛날 이야기”
9	구리	활동가	건원취타대
10		봉사단	어르신전래놀이나눔봉사단
11	군포	활동가	향토문화해설사 양성으로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
12		활동가	인성 예절·다도지도사 양성
13	김포	활동가	나도 국악전문인
14		동아리	경기민요 실버합창단
15	남양주	활동가	은빛 댄스 시니어 예술단
16	동두천	활동가	노끈으로엮어내는생활의즐거움
17	부천	활동가	나도 뮤지컬배우다!
18	성남	일자리	지승공예
19	수원	활동가	우리는 수원문화 사진지킴이
20	시흥	봉사단	잉벌로 밴드
21		콘텐츠	시흥 우리마을 만화영화 공작소
22	안산	봉사단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23		동아리	천하태평' 실버밴드 문화동아리
24	안성	활동가	안성 두레 그림마당
25		네트워크	안성맞춤 실버 동아리 봉사단
26	안양	동아리	창극으로 만나는 전래동화
27	양주	활동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도예교실
28	양평	봉사단	문화재비누만들기
29		동아리	힐링꽃누르미
30	연천	활동가	얼쭈 부채와 장고가 서로 만났네
31	용인	봉사단	실버합창단 ! 실버음악여행

No	단체명	단위 사업	사업명
32	의왕	활동가	행복을 전하는 의왕은빛실버악단
33	의정부	활동가	은빛인생 2막3장 『꿈을 실은 사진관』
34		봉사단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출동123세대 한마음밴드>
35		동아리	연륜가득 마음가득 춤누리예술단 시즌4
36	이천	활동가	구만리뜰 풀짚공예교실
37		동아리	구만리뜰 꽃칭춘
38		동아리	신명 청년풍물패'
39		동아리	자연을 머금 茶
40		동아리	한일문화다이스키
41		콘텐츠	내가 인문학이다-어르신 '이야기를 풀다, 세상을 담다'
42	과주	봉사단	「과주어사」
43	평택	봉사단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장승과 솟대'
44	포천	활동가	포천늘푸름은빛합창단
45		봉사단	포천사랑문화나눔공연
46		동아리	어르신 한자동아리<서당체험>
47	하남	활동가	훈민정음과 함께살기
48		봉사단	어르신 뜨개질 봉사단-꽃보다 뜨개질! !
49		동아리	어르신 노래교실 동아리-다같이 불러요. 로맨틱 성공적
50	화성	봉사단	화성"춤"클럽
51		동아리	화성어르신 빛그림동아리
52	군포시노인복지관	활동가	연극을 통한 자기표현 및 삶의 활력 증진 프로그램 "꿈꾸는 청춘, 연극교실"
53		봉사단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원더풀봉사단'
54		동아리	춤으로 제2의 인생을 만나다 '셀 위 댄스'
55		동아리	시니어 예술 Up! 희망 Jump!
56	남양주역사박물관	활동가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문화해설사 양성)
57	두루뫼사료관	동아리	어르신문화동아리(두루뫼사랑방)
58	봉담문화의집	봉사단	두리둥실(두마음이 뭉쳐 실천하는 봉사-경기민요)
59	설미재미술관	봉사단	뇌건강 증진 프로젝트 - '뜨고, 붙이고, 꿰매고'
60	아해박물관	봉사단	"세대공감 사랑과 효" 큐레이터
61	진접문화의 집	네트워크	노(老) : NO
62	통진도서관	활동가	신바람 놀이인문학 문화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II . 진행 과정

1. 자문회의
2. 파일럿 모니터링
3. 기획자교류 워크숍

여 백

1. 자문회의

가. 개요

1) 운영목적

- 가) 단위사업별 분석과 향후 방향(안) 도출
- 나) 교류네트워크를 위한 로드맵 작성
- 다) 기획자교류 워크숍에 참여, 현장의 이야기 수렴 및 제언

2) 자문위원 : 6인

3) 자문위원 구성 : 문화기획자, 노인복지 전공 교수 등

4) 횟수 : 3회

나. 진행일정

일정

시기	내용	비고
5~6월	자문위원 섭외	
7월 28일	1차 자문회의	
8월 4일	2차 자문회의	
8월 10~18일	파일럿 모니터링 진행	9개 단체
9월 15일	3차 자문회의	

다. 내용

1) 1차 자문회의

가) 일시 : 2015. 7. 28 (화) 14:00~

나)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다) 참석자 : 사무처 2인(최영주 사무처장, 유지연 사무팀장)

민병은(문화집합36.5대표), 윤한택(인하대학교수), 고영직(문화평론가),
신희영(문화집합36.5대표), 장세영(문화기획자)

라) 내용

(1) 현재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및 문제점 파악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및 문제점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이 금년도부터 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지원이 시작되었다.
- 단위 사업별 구분이 문화원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각 단체관리와 통제의 어려움, 이번 사업 지원은 책임의 분산으로 보여지고 있다.
- 단위사업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지만 어르신 문화학교에서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인다.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자체가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구조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 10년간의 사업이면 성과관리 후 대안을 내야 되는데 성과관리와 대안 도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항상 어르신들 잘 놀게 하는 프로그램들로만 진행이 되었다. 프레임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겠느냐. 사업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 비전이 없이 사업만 난무한 상태다.

■ 문제점에 관한 대안 제시

- 상투화된 사업들이 많다. 크게 대동소이한 사업들이다. 어르신들이라 하루아침에 문화적인 역량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관리를 하고 서로가 자극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 코호트 효과 [cohort effect] 라는 말이 있다.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같은 관점차이를 연령효과라는 측면으로 보자. ('어른이니까;')

코호트(cohort)란 5년 또는 10년 등으로 구분한 연령(예를 들어 2005~2010년, 1990~2000년 기간 내 출생자들) 등 특정한 경험을 공유해 연대를 느끼는 구성원들의 집단·집체를 말한다. 때문에 특정 코호트에서는 구성원들에 의해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된다.

- 기본적으로 for의 관점에서 (어르신을 위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by의 관점(어르신에 의한)에서 봐야한다.

- 어르신 스스로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사업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여가로 시작해서 여가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르신'이라는 특수성으로 보면 다른 프레임이 있지 않을까

- by와 about 담론이 중요하다. 지금 어르신 사업은 사회복지프레임에 갇혀있고, 그 프레임을 바꿔야한다. (for를 배제해야 한다. for를 by로 유도하도록 해야 하며 그들이 그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 기획자들이 관성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보단 노년이 필요에 의한 기획과 강사섭외가 필요하다.

- 연령효과만 말고 세대효과도 봐야 한다.

- for와 by에 대한 이야기는 대상에서 주최로 바꾸자는 이야기로 대체할 수 있다.

- 지역별 특성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바꿔야한다.

-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분절이 일어난다. 다른 세대(예를 들어 3세대)와의 교집합을 만들어야 한다.

- 이 사업의 진부성에서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사람의 인생을 쪼갤 수 없는데, 청년, 노년, 어린이와 같이 삶을 쪼개서 생각하고 있다.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함)

- 비전이 없이 사업만 난무한 상태이다.

- 지원 사업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니터링 시 제시하였으면 좋겠다.

■ 추후 자문회의의 진행에 관한 논의

- 자문회의를 확대하여 진행하였으면 한다.
- 다음 자문회의 및 모니터링에 있어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인 차승은 교수를 추천한다.
- 상시적이고 규모가 확대된 모임이 있었으면 한다. (추후 워크숍을 콜로키움형식으로 진행)
- 컨설팅 진행시 컨설팅이 아닌 모니터링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면 한다.
- 다음 자문회의 시 어르신 사업 관련하여 담론 생산이 되었으면 한다.

2) 2차 자문회의

가) 일시 : 2015. 8. 4 (화) 14:00~

나)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다) 참석자 : 사무처 2인(최영주 사무처장, 유지연 사무팀장)

민병은(문화집합36.5대표), 윤한택(인하대학교수), 고영직(문화평론가),
차승은(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신희영(문화집합36.5대표),
장세영(문화기획자)

라) 내용

- (1) 자문회의, 워크숍 등 세부 사업 별 목적 및 방법 논의
- (2) 현재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및 문제점 파악

■ 본 자문회의의 목적은?

- 기획자교류 지원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 광역 단위에서 어르신 문화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적인 방향 모색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자.
- 프로그램의 기존 프레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발전적인 형태로 바뀔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및 문제점**

- 단위 사업별 구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어르신 사업에 공적 예산을 투여하였기에 사업의 결과로 지역적 파급 효과가 있어야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단위 사업이든 지역 사회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각각의 사업을 기획자가 엮어낼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문화 지형을 읽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허브 기관 역할을 못하고 있다.
- ‘수혜자-공급자’의 맥락에서 일부 ‘수혜자’만 지원받고 있다. 복지는 수혜라는 관점을 바꿔야한다.
- 동아리의 경우, 자발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발성을 강조하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한다.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한다. 자발성이 강한 동아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동아리, 두 트랙(Two-Track)이 필요하다. 문화원 사업의 경우, 회원들의 특성 상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이 없거나 끌어들이기가 힘들다.
- 문화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시행되며, 양적 성장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애초의 기획의도, 자발성 등이 사라지고 형태만 보급이 된 상황이다. 정신은 빠지고 형태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기획의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적 기운이 희석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문화 기관에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획이나 관점을 갖기 어렵다. 복지와 문화의 소통, 연계가 필요하다.
- 기획마인드가 퇴색되면서, 창조하는 힘은 줄어들고, 카피하는 힘만 남아 무늬만 남았다. 프로그램에 투입만 하는 것 같다. 복지관도 급하게 예산을 써야하고, 업무가 과중되며, 문화에 대한 관심, 소양을 가진 전문가가 없어서, 일단 ‘투입하고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투입되고 소멸되는, 경험이 축적이 안되고 있다.
- 어르신의 만족도는 높는데, 정확한 수요도 조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등의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 오랜 활동으로 질적으로 성장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다. 이 또한 기획자의 역할이다.

- 새로운 노년층의 문화적, 생애적 특징이 달라지므로 기획의 관점이 달라져야한다.

■ 워크숍의 목적, 내용

- 워크숍을 통해 어르신 사업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기획자(담당자) 타겟으로 삼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변화를 유도하자.
- 젊은 기획자들이 어르신 문화 사업에 대한 스스로 기존과 다른 비전을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되면 좋겠다.
- 문화원 외 외부문화단체에서도 어르신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으니,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는 문화원들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 추석 전 후로 2회 진행, 첫 번째는 작은 규모, 두 번째는 큰 규모로 진행하자.
- 워크숍 전에 실제 현장 모니터링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의 관점이 for(어르신을 위한)여야하는데, by(어르신에 의한)여야하는가, 그에 대한 로드맵, 전망 등 개념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한국에서 어르신을 바라보는 관점, 한국 사회의 문제점, 오히려 복지정책이 노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점 등을 촘촘하게 분석, 강의할 필요가 있다.
- 어르신 사업을 기획, 지원하는 이유, 관점, 정책적 맥락에 대해서 기획자들도 알 필요가 있다. for에서 by로 바뀌기 위해서 이 단계는 꼭 필요하다.
- 사업의 수혜자-공급자 맥락을 깨져야하므로, 외부에서 계속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당사자인 현장 기획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내 이야기를 남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 어르신 사업의 방향

- by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역량, 의미, 노하우가 있는 동아리에 사업의 방향을 잡아준다던지, 총 지원 사업 중 by로 기획된 사업쿼터제를 시행한다던

지 지원 필요하다.

- '수혜자-공급자' 맥락을 깨야한다.
- 3세대 융합, 시니어-기획자 연결, 단순히 객관화가 아니라 by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 파일럿 모니터링 방향 및 내용

- 프로그램의 장르, 지역, 운영 기관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체 선정
- 내용
 - 어르신 문화 사업에 대한 기획을 쥐고 나아갈 수 있는 내용과 비전과 콘텐츠를 갖고 있는가
 -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효과와 영향력을 미쳤는가
 - 사업의 관점이 for인가 by인가
 - 모니터링 방식을 관찰자의 태도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방문이 되면 좋겠다. 현장을 이해하는 관점,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추후 사업의 진행에 관한 논의

- 진행 순서 : 모니터링->1차 워크숍->3차 자문회의->2차 워크숍
- 모니터링과 1차 워크숍을 통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3차 자문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방향, 제언 결정
- 1차 워크숍
 - 일시: 8월 25일 화요일, 수원문화원
 - 일정: 강의 2~3쪽지, 라운드 테이블
 - 점심식사: 도시락

3) 3차 자문회의

가) 일시 : 2015. 9. 15 (화) 14:00~

나)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다) 참석자 : 사무처 2인(최영주 사무처장, 박현미 기획팀장)

민병은(문화집합36.5대표), 윤한택(인하대학교수), 고영직(문화평론가),
차승은(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신희영(문화집합36.5대표),
장세영(문화기획자)

라) 내용

- (1) 1차 워크숍 결과 공유 및 그에 대한 논의
- (2) 2차 워크숍 기획

■ 1차 워크숍의 참가자들 반응

- 젊은 기획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어르신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좋다.
- 기존의 워크숍에서는 회계,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다. 사업 설명회에서라도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방향 공유가 미흡했었다.
- 기획과 앞으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2차 워크숍이 기대된다.

■ 1차 라운드 테이블 결과 공유

■ 현장의 고민과 대안

- 전체

- 어르신문화프로그램과 관련 문제들을 늘어놓고,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 도 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원 차원에서 감당하고 해결해야할 사항도 정리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의 목적은 기획자들의 역량강화이니, 그 외의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이월될 문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
- 어르신 관련 정책의 흐름과 그에 따른 문제의식 : 어르신 관련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화기획자들은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필요 있다.

- 문화정책적인 상황에서 어르신 사업의 위치, 방향 등 정책의 흐름에 따라 보조금이 증가, 감소한다. 앞으로 실버 관련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한 정보와 문화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실버 사업이 아니라도, 세대공감으로 진행가능한 사업들이 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
- 노인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 변화 추이 등 관련 자료나 연구보고서 발굴 : 관련 연구가 꽤 많다. 이를 수집, 공유하자.
-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문화원 사업이 다를 것이다. 그에 대한 고민도 다를 것이니 투 트랙이 필요한 것 아닌가.
- 외부의 힘에 덜 의존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회복하는 거다. 결국엔 문화원이 감각위주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나 회복력을 갖고 있는가, 문화원의 활동 또한 회복력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향토 음식 레시피 프로그램이 있다면, 레시피를 매뉴얼화 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인들과 'eating together'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보를 할 때 현수막, 전단지 등의 방법이 있지만, 지역에서 기존의 미디어 역할을 하는 사람들(반장, 동네 과일 가게 아저씨 등)과 함께 하여, 지역을 끌어들이야한다. 세대가 같이 섞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노인만 하면, 고립되는 거 밖에 안된다.

- 어르신 사업 관련 실무자 교육 미흡

- 사업 설명회 : 공모 사업의 기획 의도 및 세부 프로그램 목적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멘토링 또는 컨설팅 제도 필요 : 10년차가 되어도, 사업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 '사회적 기여' 측면으로의 확장 관련

- 일자리 사업 : 노인의 일자리 창출로의 흐름이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한

다'는 논리인 것 같다. 경제적 마인드로 문화를 바라보지 않는 다른 구도가 필요하다. 영리적인 흐름으로 진행된다면, 내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건비가 아니라 노인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금 형식이어야 하며, 노인 관련 사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경우, 그를 매개하고 보조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지 않겠나.

- 병원, 요양원 등에서 동아리 또는 봉사단에게 주는 문화 활동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요청 : 관련 부처와의 논의 필요
- 사회적 기업 관련 사항 :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논의하여 중장기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

- 프로그램 & 사업 관련

- 여러 가지 상황 상, 기존 사업을 새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회원들의 수요, 강사 변경의 어려움 등) 기존의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 스타 프로그램 기획 : 1~2개 지역 거점 선정, 지역과 외부 기획자들이 공동 기획한 사업을 실제 실행, 이슈메이킹 및 우수 사례 프로그램화 해보자.
- 동사업 워크숍을 통해 채택된 우수 기획서에 대한 지원 : 직원들이 아이디어 공유나 제안을 해도 실제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획서 제안 등에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워크숍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실제 공모에서 제안서를 냈을 경우, 차기년도 공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실제 공모 심사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관여하지는 않지만, 실현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새로움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 권역별 공동 사업 운영 : 1차 워크숍에서 제안된 권역별 공동 사업은 시도해 볼만 하다. 도연합회 차원에서 의사가 있는 지역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 강사풀 운영 : 기획력이 있거나, 새로운 방식의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계속 유입되어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강사들이 지역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우니 광역차원에서 강사 풀을 만들어나가면 좋겠다. 기존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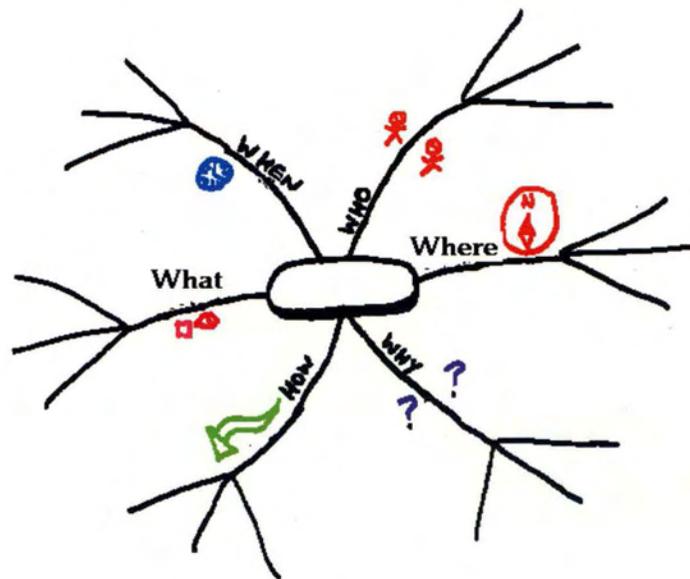
사를 바꿀 수 없다면, 투 트랙으로 운영하면 좋겠다.(기존 프로그램 유지+새 프로그램 개설)

- 어르신 일자리가 아니라 어르신과 관련된 프로그램 활성화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되지 않나. 예로 어르신 연극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면, 이를 지도할 연출자, 강사, 마케팅을 할 젊은이들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기획자 역량강화
- 문화원들이 진행하는 단위 사업 수가 35개가 평균이다.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행정 업무, 의전 업무 등에 대한 무게감이 크다. 실제 기획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당장 변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계속 만나고, 교류하여 그런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야한다.
 - 브레인스토밍 : 기존 또는 주어질 공모 사업 제한 조건 없이 당신이 생각하는 어르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떨까, 내가 노인이라면 무슨 사업이 필요할지 등 제한없이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차기년도 공모를 함께 준비 : 프로그램 기획 워크숍을 통해 브레인 스토밍, 기획, 보완, 수정해 가는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자문위원 및 참가자들의 컨설팅)
 - 현재 사업에 대한 공동 컨설팅 : 왜 우수 사례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해당 지역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컨설팅을 하는 경우, 비난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기존 프레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갖고 1~2가지의 장치적 요소를 컨설팅해보자. 참가자들이 각 사업 브리핑, 자평을 하면, 그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과, 자문위원들이 무엇을 바꾸면 좋을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다.
 - 노년의 문화 관련 연구보고서의 수집, 공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노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석 결과를 기획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획자들이 앞으로도 꾸준한 공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한다.

- 기획자의 역할 매뉴얼 :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지역이나 조직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를 것이다. 기획서 양식을 작성해나며 이야기 나눌 수 밖에 없을 듯 싶다.

■ 추후 사업의 진행에 관한 논의

- 진행 순서 : 3차 자문회의->2차 워크숍->결과보고서 발간
- 2차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안)
 - 노인의 욕구와 그에 대한 문화 사업
 - 기존 기획안 점검과 자평
 - 아이디어 공유와 기획서 작성/공유
 - 어르신의 문화 관련 자료 공유
- 2차 워크숍 일정
 - 일시: 11월 6~7일 1박2일, 장소 미정
 - 일정: 강의 2~3쪽지, 라운드 테이블
 - 숙박 필요



2. 파일럿 모니터링

가. 개요

1) 목적

- 가) 어르신문화사업 향후 방향 모색 및 사업의 이해도 증대를 위한 현장 파악
- 나) 현장에서의 동 사업 이해도 파악
- 다) 사업 기획 및 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 수렴

2) 모니터링 위원 : 자문위원 중 일정이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

3)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방법 : 36개 기관/단체 중 9개 선정

- 가) 단위 사업을 고려, 1차 대상지 선정
- 나) 1차 선정 기관/단체의 의사 및 모니터링 기간에 해당 프로그램 진행 여부 조사
- 다) 최종 선정

4) 내용 : 선정된 단체에서 기획, 진행 중인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하여 지표에 따라 모니터링

나. 진행 일정

시기	내용	비고
8월 4~9일	모니터링 대상 선정	
8월 10~18일	파일럿 모니터링 진행	9개 단체
8월 19일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다. 모니터링 항목

동 사업에 대한 기획자(기관담당자 및 강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파악

A	어르신문화사업 중 단위 사업별 목적과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B	어르신들의 필요(수요)에 의해 기획된 사업인지
C	프로그램의 기획 관점이 어르신을 수혜자로 보는지, 주체자로 보는지
D	참여자들의 세부 연령(특성)에 따른 기획인지 등
E	세대 분절이 아닌 소통을 위한 사업인지 또는 이를 위한 과정이 있는지
F	기획자들이 바라보는 노년에 대한 관점

동사업의 지역연계성 및 지속가능성

G	동 사업의 기획, 추진체계, 진행 과정에서 지역 자원 또는 네트워크 활용 정도
H	동 사업의 참가자들, 사업의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실제 영향
I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기획인지 등

라. 모니터링 결과

- 1) 결과 공유 : 1, 2차 워크숍 때 세부 내용 공유
- 2) 항목에 따른 결과

항목	동 사업에 대한 기획자(기관담당자 및 강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파악						동사업의 지역연계성 및 지속가능성		
	A	B	C	D	E	F	G	H	I
G	○	○	△	△	△	◎	○	△	△
G-1	○	◎	○	△	△	◎	○	○	◎
K	○	○	△	△	○	○	○	△	△
S	○	○	△	◎	△	◎	○	△	△
A	◎	○	○	○	○	◎	◎	○	○
A-1	○	△	○	△	△	△	○	△	△
E	◎	◎	○	○	○	◎	◎	○	△
E-1	◎	○	◎	○	○	△	○	○	○
H	○	○	○	○	△	△	△	△	△

*기관명 미공개 ◎잘함 ○보통 △미흡

3. 기획자교류 워크숍

가. 개요

1) 목적

- 가) 어르신 사업 담론 생산과 정책 로드맵 공유를 통한 기획자 역량 강화
- 나) 동 사업의 내용 및 향후 방향 공유와 네트워크 파티

2) 대상 : 경기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담당 기획자, 실무자 등

나. 진행 일정 및 세부 내용

1) 1차 워크숍

가) 일시 : 2015년 8월 25일 10:30~18:00

나) 장소 : 수원문화원

다) 특이사항

- (1) 나이들의 과정, 노년의 특징, 노인 존재에 대한 강의
- (2) '기획자네트워크 파티'에서 참가자들이 각자 담당하는 사업 소개
- (3)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및 (도)연합회에 제안하는 점 취합
- (4) 동 사업의 발전방안 관련 의견 취합

라) 세부프로그램 : 강의 원고 첨부

구분	내용	진행
1	개회식 -동 사업 및 워크숍 기획 의도	
2	한국에서의 나이들, 그 의미와 특성 : 노년기 문화활동에 대한 함의	차승은 수원대학교아동가족복지 학과
3	노인 '문제'가 아니라 노인 '존재'이다	고영직 문학평론가
4	기획자 네트워크 파티 : 라운드 테이블 -기관/단체별 사업 소개 -동 사업 관련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취합 -동 사업 관련 (도)연합회로의 제안 사항 취합	민병은 문화집합36.5 대표

2) 2차 워크숍

가) 일시 : 2015년 12월 3~4일 (1박 2일)

나) 장소 : 수원호스텔

다) 특이사항

- (1) 참가자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로 테이블 배치
- (2) 강사는 발제자, 참가자 및 강사 외 자문위원이 토론자로 역할을 나누어 강의와 토론을 함께 진행
- (3)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공유, 그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타 기관/단체 담당자들의 해결 방안 공유
- (4) 실버세대의 특징과 실버 문화 관련 자료 제공 (참고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간 웹진 문화관광 11.2015)

라) 세부프로그램 : 강의 원고 첨부

구분	내용	진행
1	개회식 동 사업 및 워크숍 기획 의도	
2	어르신사업 모니터링 내용 공유	민병은 문화집합36.5 대표
3	경기도 어르신사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4	어르신사업의 담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윤한택 인하대학교 교수, 역사가, 문자연구가
5	노인 대상 프로그램 기획사례연구 :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강주희 안양문화예술재단 과장
6	라운드테이블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다. 기획자 라운드 테이블

1) 개요

- 가) 목적 : 기획자교류를 위하여 참석자들간 소개, 담당 사업 사례 공유
- 나) 내용 : 각 담당 사업 소개 및 동 사업과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
- 다) 방법 : 워크숍 참석자들을 모둠별로 나누어, 의견 취합

2) 세부내용

가) 사업 기간에 대한 변경 요청

- (1) 차기년도 사업을 미리 기획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 고지 요청(2016년 사업은 2015년에 고지)
- (2) 사업 진행 속도, 상황에 따라 사업 종료일 연장 필요 : 예산 집행이 예년보다 늦었는데, 종료일은 같다.(10월 말) 평택의 경우 메르스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는데,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종료일은 같다.

나) 실무자에 대한 교육 미흡

- (1) 사업 방향에 대한 분명한 제시 미흡(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샵 시) -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내용 및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연합회측에 문의, 자문을 구했을 때 뚜렷한 방안을 얻을 수 없다.
- (2) 특히 신규 단체 컨설팅 시에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매우 미흡했다.

다) 실제 사례 공유, 사례 발표회 같은 기회 - 사례를 발간물이 아니라 관계자(기획자, 직원, 강사 등)를 실제 만날 수 있는 기회 필요하다.

라) '사회적 기여' 측면으로의 확장

- (1) 어르신 세대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세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 (2)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사업 (약 3년) 일정 기간 운영 후, 사회적 기업 혹은 노년 일자리 창출 가능한 방향으로 진화되기 위해 그 전 단계 준비과정의 다양한 지원 필요
- (3) 어르신 대상 창업교육 : 사회적 기업 제도 안내, 회계 행정 프로세스 교육 등 How to 매뉴얼 및 강의
- (4) 어르신 사업 지원 : 실적 및 자리 잡기 전 임대차 사무실 및 회계 처리를 위한 어르신 창업 센터(조직)

마) 현재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동아리, 봉사 단체로 공연 의뢰가 많으나, 현재 문화원에서는 계산서 발급이 안되므로 이익 사업 대행을 진행할 수 없음. 회계 작업 해줄 수 있는 대표 기관 설립 요청 -> 매뉴얼 작업하면 좋겠다.

바) 모집원 특화

- (1) 관내 각종 협회와 연계 지원
- (2) 인력모집, 운영 등의 지원
- (3) 강사 및 보조인력 지원
- (4) 홍보 지원 등

사) 문화원 권역별 네트워크 활용

- (1) 권역화로 원활한 사업 교류 기회 필요
- (2) 소규모 프로그램은 홍보 등이 미약함. 권역화 또는 4~6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규모를 키우는 기회 필요

라. 기획자교류 워크숍 자료

1) 1차 워크숍

- 가) 한국에서의 나이듦, 그 의미와 특성 : 노년기 문화활동에 대한 함의
차승은 수원대학교아동가족복지학과
- 나) 노인 '문제'가 아니라 노인 '존재'이다
고영직 문학평론가

2) 2차 워크숍

- 가) 경기도 어르신사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 나) 어르신사업의 담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윤한택 인하대학교 교수, 역사가, 문자연구가
- 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 기획사례연구 :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강주희 안양문화예술재단 과장



한국에서 나이듦, 그 의미와 특성



노년기 문화활동에 대한 함의

차승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강의 내용

- I. 노년기의 정의와 나이듦의 과정: 생애과정(life-course)
- II. 노인으로 살아가기: 노년기 일상생활
- III. 노인과 문화: 왜? 그리고 어떻게?

노년기의 정의와 나이듦

생애과정(LIFE COURSE)적 접근

노년기의 정의

- 노년기 정의와 구분

인간 발달의 후반부를 뜻하며, 중년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시기를 의미.
통상적으로 노인이라고 일컫어지는 시기는 역연령상 65세 이상임.

- 100세 노인(centenarian)의 수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노년기 내에서도

노년전기 (혹은 연소노인 65-74세), 고령노인(75-89세), 초고령노인(90세 +)로 구
분이 이루어지기도 함.

- 전통적인 회갑연령 (만 60세)가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의 기준으로 작용함.
노동시장에서는 퇴직연령(55-60세)이 노년기를 가르는 기점이 되고 있음.

- 노인관련 복지제도는 65세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이 이루어짐에 따라 65세가 노
인이 되는 시기로 알려 있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애 후반기
(노년기)를 인식하
는 또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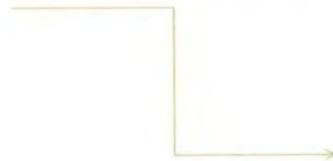
연령의 다양한 의미

- 연령의 의미
 - 역연령(chronological age, ontological age) (기대수명)
달력연령, 1년 365일을 기준으로 단위의 구분
 - 기능적 연령 (건강수명)
신체적, 심리적 기능정도에 따른 연령
 - 사회적 연령(social clock)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반영한 연령
군입대 나이, 결혼적령기, 은퇴, 조부모
 - 주관적 연령
내적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나이.

여기서 잠깐!

어떤 연령이 노년기를 가늠하기에 가장 유용할 수 있을까?

- 나이가 든다는 것...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수반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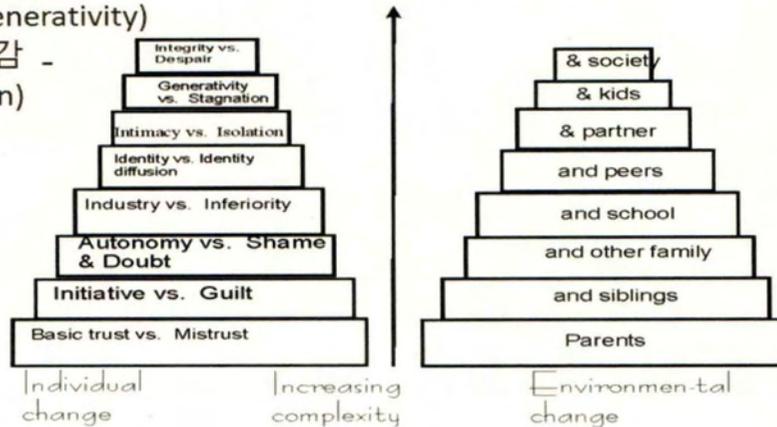
삶을 바라 보는 태도, 인식, **조망 (perspective)**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화되는 과정

삶의 질 그 자체도 달라질까?

-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을까?
-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겪을 수도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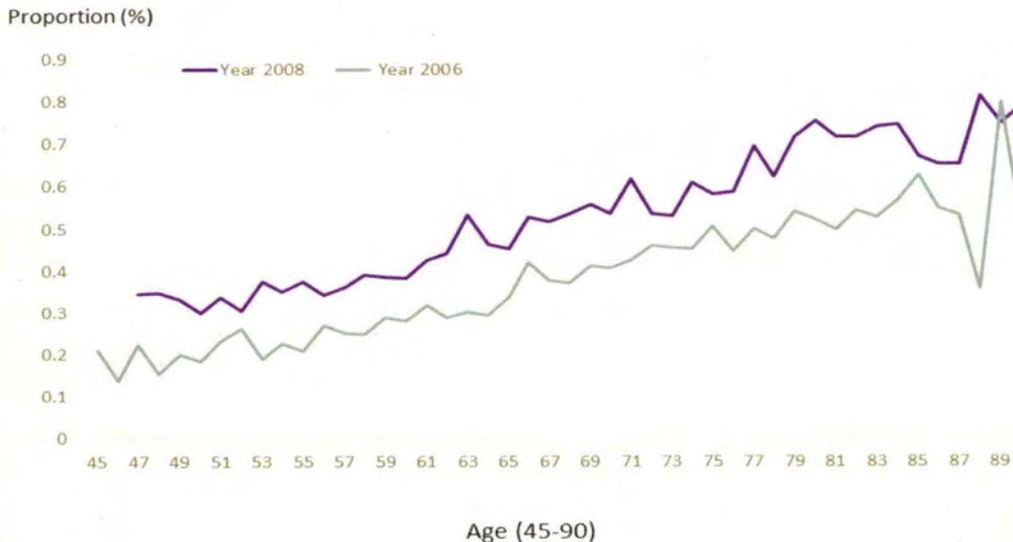
진정한 "나" 를 대면하는 시기

- Erickson 의 발달이론상의 마지막 두 단계
생성감 (generativity)
자아통합감 - (integration)



- 융의 성격이론
개별화 (individualization)

Result 1: The Trend of Elderly Depression by Age (age 45-90):
KLoSA 2006, 2008 original data



프랑스 GAZEL 지역의 노동자들의 12년간 우울감 변화 유형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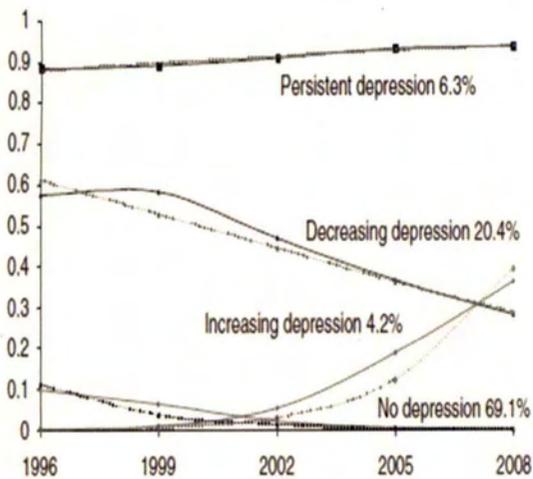


Figure 1 Depression trajectories among men of the GAZEL cohort (1996-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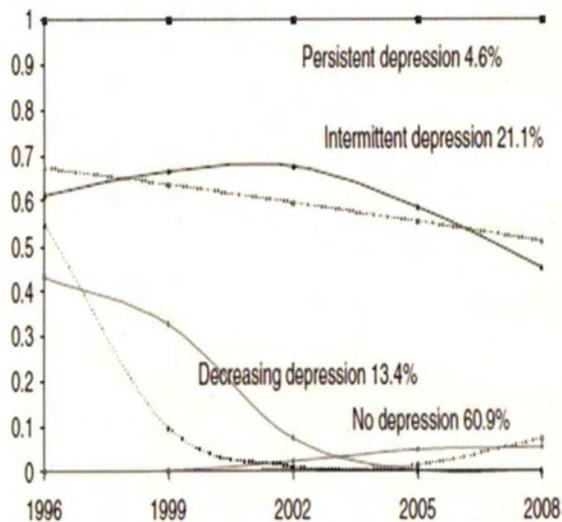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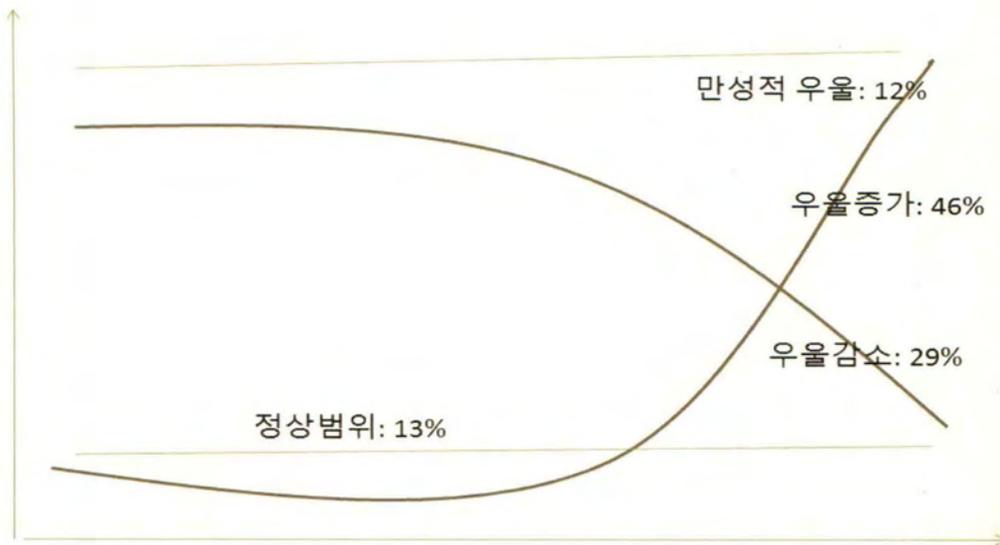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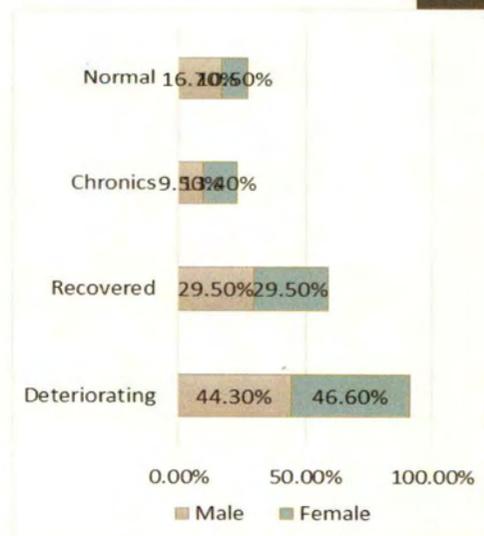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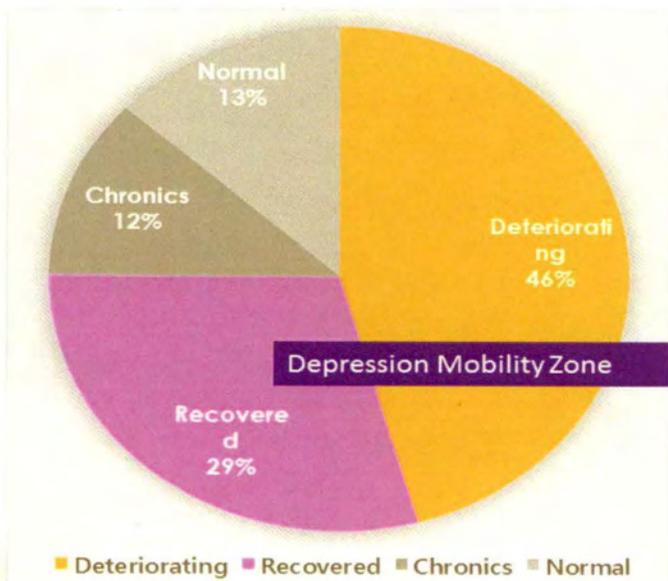


Figure 2 Depression trajectories among women of the GAZEL cohort (1996-2008).

한국 KLOSA에서 2006년에서 2008년간 우울증 유형



Result 2: Four Categ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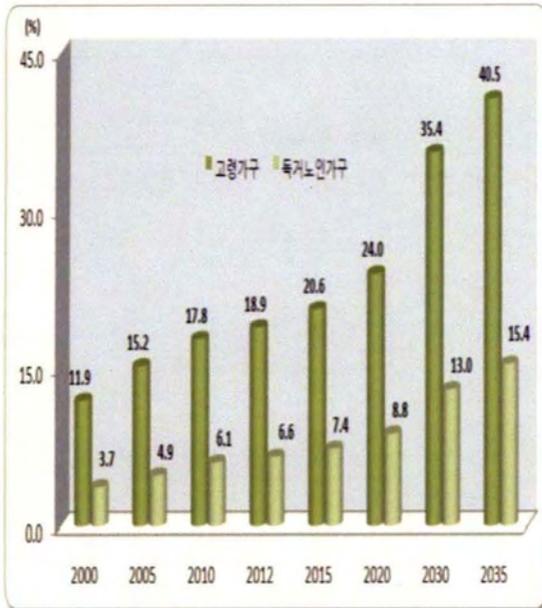
“나이듦”과 연계된 취약성(vulnerability)

by Sara Arber and Helen Cooper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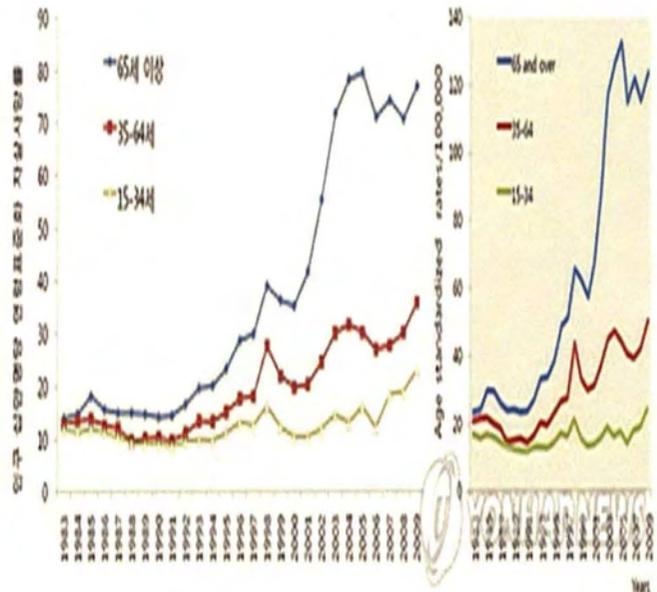
- 사망률의 차이와 긴 수명으로 인한 기능제한의 취약성-
오래 생존(survival) 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픈 상태로 오래 산다면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성공한 삶”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 거주형태상의 취약성- 독거가구와 사회적 소외
- 경제적 의존성과 빈곤문제- 기능적, 적응적 측면에서의 경제활동 제약

이 모든 요소들은 다시 “나이가 들었다”는 연령과 맞물려 있음
거시적으로는 세대(cohort)에 따라서도 다름

• Elderly Living Alone



Elderly Suicide Rate



“나이듦”을 겪는 방식

- **연령효과(발달)**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겪는 현상, 발달과정상 필연적인 변화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노인이다(?)”

- **시대효과(코호트 효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나이듦”을 겪는 방식이 차별적
특히 시공간적으로 다른 세대는 “나이듦”도 다르게 겪을 수 있음

“88만원 세대”

“샌드위치 세대, 허리 휘는 노년”

과거의 노인, 현재의 노인

- 조선시대 (영,정조시대) 노인들이 2014년 현재를 살아가는 노인보다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다?
- 조선시대 65세가 2014년 현재 65세보다 덜 우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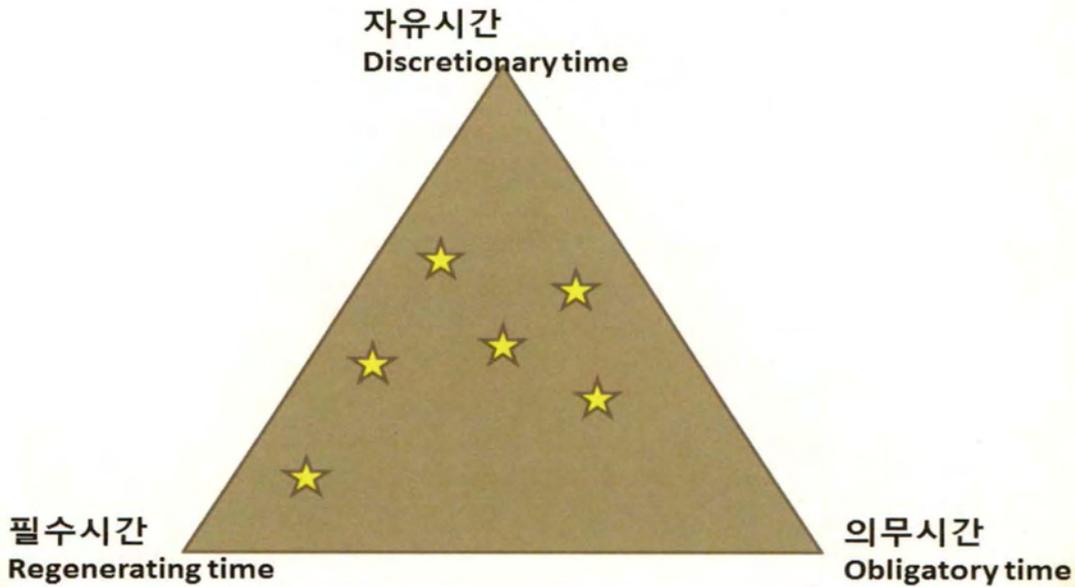
나이듦에 대한 인식 생애과정관점 (life course perspective)

- 생애과정, 생애경로, 생의 여정, 궤적(trajjectory)관점
- 생은 그 나름의 정류장(전이)과 모퉁이(삶의 전환점)들을 가지고 있다.
- 생애의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그 모습과 경로가 달라진다.
- 개별적인 생은 다른 듯(차별성) 하나 또한 유사하기(보편성)도 하다
-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의 근접한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연결되어 있다(상호연계성)

노인으로 살아가기

노인의 일상생활

일과 삶의 균형과 Virtuous Triangle (전지원, 2014)



비구조화된 삶과 그 이후?

- 주 7일 365일이 일요일의 상황
- 삶의 리듬감을 상실
- 집중력 저하
- 남는 시간의 폭풍
- 지루함, 무료함, 심심함
- 불안함
- 불행함
- 삶의 의미 상실
- 장기적 우울상태
- 자살생각
-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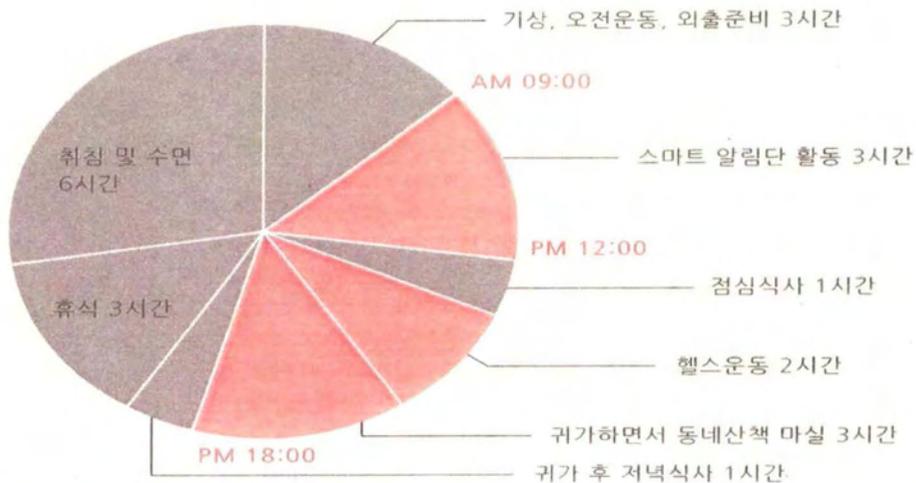
하루 24시간, 365 일 65-90세까지 25년간 생존 가정하면 219,000시간이 존재

Emil Durkheim의 자살론

- 사회통합과 자살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
- 뒤르켐은 이 책에서 매우 개인적인 듯이 보이는 **자살**과 같은 행위가 사회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 주장
- 그때까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요인을 인종이나 기후, 혹은 정신적 장애로 설명했지만,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서 설명
 - **숙명론적 자살 (체제와 시스템에 의한 무력감)**
 - **이타적 자살 (지나친 통합)**
 - **이기적 자살 (고립)**
 - **아노미적 자살 (혼란과 비구조화)**

노인의 하루 일상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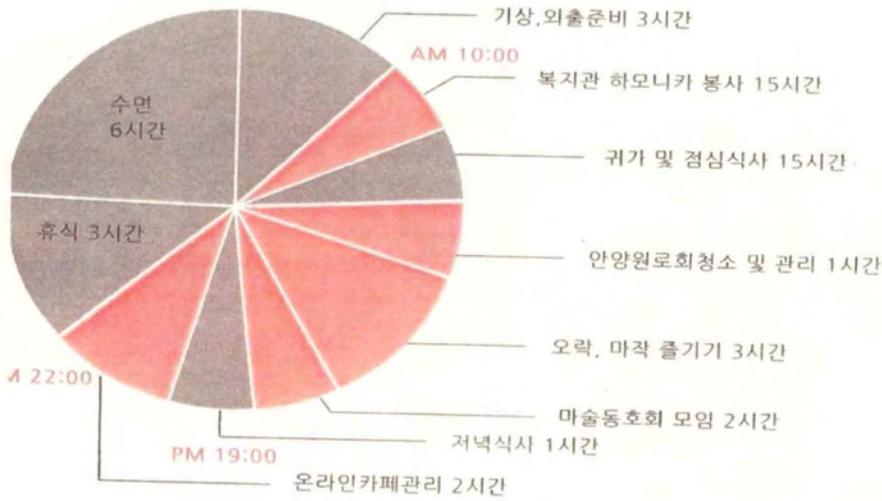
안양에 사는 손 어르신의 어느 하루 일과



백현주 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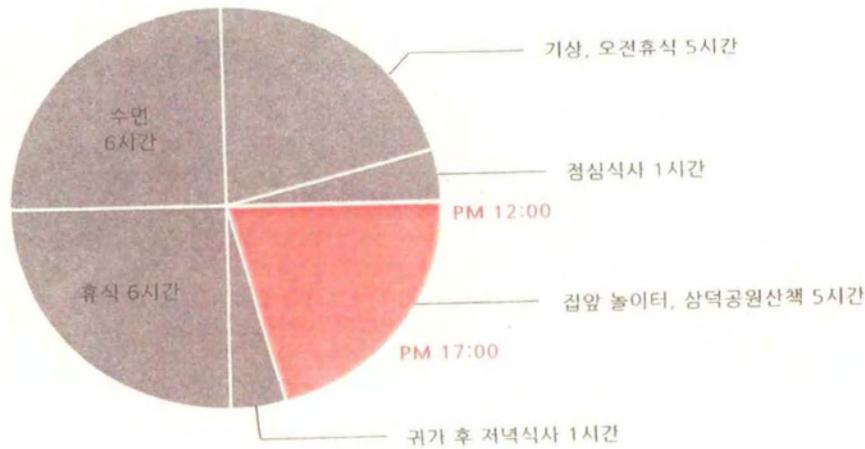
노인의 하루 일상 (시간)

안양에 사는 오 어르신의 어느 하루 일과



노인의 하루 일상 (시간)

안양에 사는 장 어르신의 어느 하루 일과



사례)
Heidi “ Peter’s Grandmother”



노인과 문화
왜? 그리고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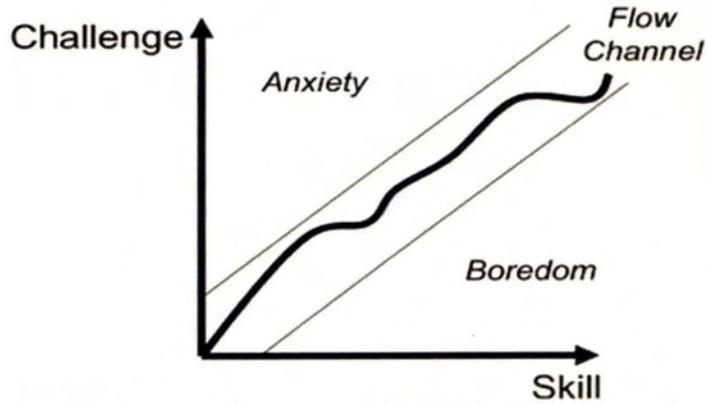
노인과 문화: 왜?

- 삶의 지속성, 연속성의 관점: “나이가 들면서 문화향유 방식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
- 삶의 정류장과 모퉁이에서 삶의 의미 부여에 도움을 준 문화 및 문화에 대한 친밀감이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과정
- 상호의존: 삶이 상호 의존, 상호영향이 있듯이 세대간 자연스러운 상호의존과 공유가 존재
- “나 ” 를 찾는 과정을 돕는 하나의 도구
 - 과거와 나를 연결하는 출구
 - 문화를 만들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 ” 를 깨닫게 되고

노인과 문화: 왜?

- 무너진 일상을 구조화시키는 방식으로 문화적 바탕을 이용
-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않고 몰입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시간
- 여가시간의 의미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는 것.
- 여가를 통해 몰입과 집중을 실천할 수 있어 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 **몰입가능성**은 노년기 10만시간의 여가시간을 채우는 하나의 키워드
- 교육수준 문화적 소양은 통하는 것이 있다
* 교육은 과거의 인적, 사회적 자원 축적을 의미





"Flow" concept by Mihaly Csikszentmihalyi. Drawn by Senia Maymin.

Flow

- 특정 활동에 빠지는 상태
- 시간, 공간, 피로와 배고픔마저 잊는 수준의 몰입
-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법
- 개인의 행복한 심리상태에 초점

Work Engagement

- 직장에서 업무 등에 집중하는 상태
- 성과창출에 필요한 수준의 지적, 심리적 몰입
-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하는 법
- 조직의 성과달성에 초점

노인과 문화: 왜?

- 노년기의 삶에 대한 보고: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노년기 삶에 대한 "살풀이" 과정
- 노인으로 살아가기 경험 "노인 스스로 보고하기"
 - 죽음을 맞이하는 경험
 -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재의 성찰
 - 노인으로서 견뎌내야 할 것들
 - 사회적 취약자로서 살아가는 것의 경험
 - 노년이 갖는 장점

시공간적으로 노인으로서 겪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삶의 보고서로서 기능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년일과사」는 모두 6수로 이루어진 연작시로서, 노인에게 유쾌한 일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노인이 되어 대머리가 된 것, 이가 모두 빠진 것, 눈이 어두운 것, 귀가 먹은 것, 마음 내키는 대로 미친 듯 시를 쓰는 것, 때로 벋들과 바둑 두는 것이 곧 그것이다. 다산은 이로써 노화에 관한 통념을 뒤집고 있다. 대머리가 된 것이 유쾌한 까닭은 머리를 감거나 빗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가 모두 빠진 것이 유쾌한 까닭은 치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눈 어두운 것이 유쾌한 까닭은 책을 보거나 학문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귀 먹은 것이 유쾌한 까닭은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미친 듯 시를 쓰는 것이 유쾌한 까닭은 어려운 운자(韻字)에 구애되지 않아도 되고 오래 퇴고(推敲)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바둑 두는 것이 유쾌한 까닭은 강적을 피하고 하수(下手)와 대국하여 편안히 소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의 “노년일과사” 중 (박혜숙, “정약용의 노년시” 중, 민족문학사 연구, 2010)

주렴 밖에서 떠들썩하게 웃는 소리 나며	哄堂大噱隔簾帷,
인간에 포복절도할 일이 있는 듯하기에	定有人間絕倒奇,
천천히 일어나 아이 불러 그 곡절 물어보니	徐起呼兒問委折,
일없이 우연히 서로 즐겨 웃었다고만 하네.	但云無事偶相嬉.

어리석고 귀먹으면 잔소리도 말아야 하는데	癡聾本分戒煩苛,
백사를 모른 채 하다 우연히 한 번 꾸짖었네.	百事含容偶一呵.
내 보기엔 정신 맑고 아무 잘못 없건마는	自視惺惚無過誤,
모두가 날 노망이라 하니 어찌하겠나.	衆推爲耄可如何. ¹⁹

속으로 늙은 나이 헤아리며 스스로 의아해라	默數頽齡只自疑,
잠시 즐겁게 웃다가 홀연 슬퍼지누나.	暫時歡笑忽焉悲.
안방의 누런 머리 할멈은 어디서 왔는고	何來屋裏黃頭媼,
곁에 앉은 백발 아이 괴이하기만 해라.	頗怪牀頭白髮兒. ²⁵

노인과 문화: 어떻게?





노인 '문제'가 아니라

노인 '존재'이다

고영직

문학평론가

(1) 한낮에 국수 가는 전철은 한가하다.

노인은 왜소한 몸으로 7인석 좌석을 다 차지하고 앉아
신문을 쌓아놓고 보고 있다.

한쪽 다리를 좌석 위에 툇 얹어놓고

등을 옆으로 기대고 한껏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편할수록 더 걸리는 허리.

최선을 다해 자세를 고쳐 앉아보지만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허리와 어깨는 10초 동안 평안한 척하다가 다시 못마땅해진다.

_ 김기택 「국수행 전철에서」 1연 (밑줄 인용자)

노년은 무엇으로 사는가. 김기택의 시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 상실의 문제를 매우 쓸쓸한 언어로 환기하는 작품이다. 이 시는 노인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노인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것처럼.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 상실을 대체하는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한다면, 노년의 삶은 너무나 쓸쓸하고 또 쓸쓸할 법하다.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스스로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멋진 노년의 '말년의 양식' (late style)을 형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노년일수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 시·공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삶의 문화가 요구된다. 노년의 문화 활동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활동이론은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된다는 이론이다. 노년의 '학습'이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노은영은 《노인의 동아리 활동과 삶의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2015)¹⁾라는 논문에서 서울 노인복지관 2곳에서 활동하는 남녀 노인 6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활동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노인들의 동아리 활동은 다섯 개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①심신의 건강, ②자존감 및 삶에 대한 의욕 향상, ③다른 여가 활동으로의 연결, ④사회적 교류 확대, ⑤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그것이다. 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해 노년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마음의 사다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미일 터이다. '인구정책은 타이밍'

1) 노은영, 《노인의 동아리 활동과 삶의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1호, 2015.3.

이라는 말처럼, 노년의 문화예술교육이 양적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되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2) 우리나라 노년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질적 제고라는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상투성’을 극복해야 한다. 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노년 문화예술교육은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사업의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젊은 예술강사를 선발해 문화원과 노인복지관 등에 파견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노년 정책사업이 한 사람의 노인 ‘존재’를 온전히 보려는 대신에, 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예술(교육)적 솔루션으로써만 접근한 측면과 관련이 있다. 철학 부재라고 해야 할까. 노년을 대상화하는 물량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어떻게 노년을 삶의 주체로 서게 하는 동시에 지역의 주체로 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 희박했다. 정책사업의 계획서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호’ 불과한 것이었다고 해야 할까. 그 결과가 노년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전무했다는 것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3월 출범한 수원시평생학습관 내에 개설된 노년 학교 <뭐라도 학교> 같은 ‘변화’에는 너무나 둔감했다. 노년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인생나눔교실>의 경우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문화적 공유지대를 형성하고 소통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없지 않다. 그러나 노인(어르신) 멘토를 5개 권역별로 선발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자유학기제 중학생, 군인 등 청(소)년 세대와 만나게 하는 형식과 내용은 더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필요해 보인다. 노인이 보유한 경험을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절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생 나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학습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만만치 않은 숙제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자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노년기일수록 나와 소통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자기교육(self education)으로서의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움은 지금 당장의 쓸모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쓸모 이상의 가치를 준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노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국내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주요 현황>2)

시작 연도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사업항목(사업내용)	추진성과 비교
2005년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부 지역전통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문화학교 - 찾아가는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강사파견 등) - 문화나눔봉사단 - 문화동아리활성화 - 생활문화전승 - 세대공감한마당 - 우리마을문화로가기 - 어르신인문학소풍 - 농어촌산바람문화사업 - 권역별어르신문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10개 문화원, 10개 프로그램, 2억 4천만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시작 (수혜자; 364명) - 2014년 295개 문화원, 415개 프로그램, 37억 58백만원 규모의 사업진행 (수혜자; 13,366명 / 433개 프로그램 진행)
2006년 ~	사회 문화예술 교육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문화부 문화예술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연극, 무용, 음악, 미술, 사진 5개 장르 예술강사 파견) - 노인 분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시범사업(2014~/3개 지역센터 연계) - 청춘제 운영(2014~) 	<p><2014년 지원사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90개 노인복지관 대상으로 145명 예술강사 파견 (수혜자; 5353명)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문화부 문화예술교육과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노인대상 문화예술교육 실행단체 지원) 	<p><2014년 지원사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지원건수 328건 중에서 노인 34건 지원 - 총 예산 5,741백만원 중에서 노인 380백만원 - 총 수혜인원 8,690명 중에서 노인 484명
2008년 ~	어르신 특화 시민 문화예술 교육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노인대상 문화예술교육 실행단체 지원) 	<p><2008~2014 지원현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간 총 38억원 규모 지원 - 7년간 총 160개 프로그램 지원 - 7년간 총 수혜자수; 3800명
2015년 ~	인생나눔 교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부 인문정신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나눔 멘토 양성 및 파견 운영 사업 (군부대, 자유학기제학교,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총 4억 지원예산 규모로 파일럿 방식의 사업추진 중

2) 추미경, 「노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동향 및 이슈」,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노년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자료집, p.23.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5년부터 시작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도입 10년째를 맞았다. 이어 아르떼, 서울문화재단(서울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부) 등의 정책사업이 신설되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사업의 양이 아니라 질적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노년 ‘문제’가 아니라 노년 ‘존재’로서 보려는 우리 안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정책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방적 사회정책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의 핵심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예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노년을 상상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의 ‘노년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2014년 안양문화예술재단과 함께 <노년을 노닐다> 포럼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느낀 경험적 진실이다. 첫째는 먹고사는 문제로서의 양식(糧食)이고, 둘째는 품위 있는 시민들의 교양으로서의 양식(良識)이며, 셋째는 일종의 문화적 스타일(style)을 의미하는 문화형식이고 문화적 문법으로서의 양식(樣式)이 필요하다.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의 욕망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양식의 기반이 없고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말할 나위 없다.

이 세 가지 차원의 양식을 제대로 성찰하고, 적절한 예방적 사회정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 안의 시선과 마음의 습관은 여전히 ‘퇴적 공간’에 쌓인 퇴적물로서 노년의 삶을 보려는 우리 안의 관점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대 노년의 문화에 관한 새로운 ‘멋론’의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 측면에서 볼 때, 두 번째 양식(良識) 측면이 문화원의 <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비롯한 정책사업과 관련되고, 세 번째 양식(樣式)에 관한 담론 형성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나는 보고 있다.

(3) 2014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작성한 『2014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조사연구』³⁾는 지난 10년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성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에 대한 접근에서 시혜적 교육방법을 넘어, 참여와 주체화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사업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문화활동가 및 문화 매개자로의 전환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요구와 가능성이 도출되는 것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어르신 브랜드숍’ 구축 관련 문화콘텐츠 생산자로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원방식에서 기존 프로그램의 관성

3) 신동호 외, 『2014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조사연구』, 2014, 한국문화원연합회.

화와 피로도를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실험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획공모’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된다. 프로그램 방법에서도 장르 구분보다는 융·복합적 접근 필요성이 필요하며, 대상 설정에서도 청년 연계, 직장인 연계, 생애기술을 보유한 (예비)은퇴자,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등 다른 세대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은 지방문화원이 적극적으로 참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년 문화예술교육은 이른바 정책 공급자의 시선과 관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노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경우 대체로 노년을 ‘위한(for)’ 정책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예술강사를 모집해 노인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하거나 갖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몇 개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몇 명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입었다는 식의 숫자 위주의 성과지표가 노년의 문화예술교육의 전부를 말해줄 수 있는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방향이 노년 스스로(by) 기획하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노년의 삶에 대한(about) 담론 형성과 정책토론회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지난 8월 김포문화원과 안양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난 사업 담당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십분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평생학습관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는 액티브시니어들의 베이스캠프를 표방하며 2015년 3월 25일에 출범한 <뒤투학교>(http://cafe.daum.net/3rd-Age) 이야기는 노년 스스로 노인을 위한 교육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 노년을 정의하는 개념 정립 자체가 어려운 만큼 <뒤투학교> 출범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뒤투학교> 사업의 핵심은 연령대의 특성과 지향에 맞는 강의 배치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의지와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년 스스로 내 안의 ‘사용가치’를 찾아가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뒤투학교>의 특징은 1~2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계별 교육과 다양한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정은 기본클래스, 전문클래스, 창작클래스로 나뉘며, 세부 과정으로 기본클래스인 <인생수업>과 전문클래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공헌 아카데미>, <시니어 전문강사 양성과정>, <우리들교실 강사 워크숍>이 있으며, 창작클래스에는 <기획강좌 월담>, <우리들교실>, <커뮤니티> 등이 있다. 아직 첫발을 떤 단계라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지만, 일종의 ‘노노케어’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자 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충북 옥천 안남면과 안내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머니학교>와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어머니학교>를 수료한 78.2세의 할머니 20여 명이 쓴 시집 『날

보고 시를 쓰라고』를 보며 숙연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이 또한 지금껏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공급 방식이 아니라 할머니들 스스로 성장해가며 동아리를 형성하고 일상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욱 끈끈해졌으며, 당신들의 필요에 의한 강좌를 개설해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네 삶이 분절될 수 없는 것처럼 노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 또한 ‘노년들끼리만’ 진행한다고 교육효과가 높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교육 공간 구성의 변화를 상상하고 실행하려는 정책적 관심과 태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뿌리와새싹>의 경우 노인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노유(老幼)복합시설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대덕테크노벨리가 신도시를 분양한 후 지은 이 커뮤니티센터는 노인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며 나들이를 하고 텃밭을 가꾸는 등 자연스럽게 일상을 교류하고 있다. 내가 직접 확인한 복합문화센터로서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화성나래울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4) 오근재는 『퇴적 공간』(2014)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액자 밖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액자의 바깥에 내던져진 존재와 같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노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처럼! 노년이 된 그는 같은 세대 노인들이 자주 머무는 서울의 주요 현장들(탑골/종묘공원, 허리우드클래식, 서울노인복지센터 등)을 찾아 일종의 문화기술지적 심층탐사를 한 후에 『퇴적 공간』을 집필했다.

오근재는 노인들이 머무는 이런 공간들을 ‘퇴적 공간’이라고 부른다. 도시의 인위성에 밀리고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인간들이 강 하구의 삼각주에 쌓여가는 모래섬처럼 모여든다는 뜻에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더 이상 내다팔 수 없는 잉여인간의 신세가 되어버린 노인들이 하구의 삼각주처럼 퇴적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 퇴적 공간에서 노인은 뒤쳐진 존재 혹은 그저 보이는 대상으로 물성(物性)화될 뿐, 주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런 사회에서 한 사람의 노인이 된다는 것은 내면화된 수치심(shame)의 문화를 수용해야만 한다. 영어 단어 ‘shame’이란 단어는 ‘수치심’이라는 명사이면서 동시에 ‘창피 주다’는 동사이기도 하다. 그는 말한다. “자신들이 인간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자원(Human Resource)으로 분류되어 살아왔음을, 물성적 교환가치가 소멸되는 순간 시장에서 찌꺼기처럼 폐기되었음을. 그래서 ‘어르신’들은 누구랄 것 없이 고독하고 쓸쓸하다.”

어쩌면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안의 척도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자연 현상으로서의 노화(老化)보다 사회학적 노화 차원에 대한 우리 인식 자체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저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설한 바 있는 형상(eidos, 形象)론은 지금 시대에 와서 재화(財貨)의 획득으로 대체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노화와 죽음 자체를 긍정하고, 노동과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사회와 문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개인의 자존과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개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을 삶의 현장에서 몰아내고 노인 ‘만’의 공간으로 고립시키는 지금의 노년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공동체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집 지붕은 옆집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매개 과정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일본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948년에 설립된 주총연의 고령기거주위원회 (www.jusoken.or.jp)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바 있는 <지역공생의 집> 이야기를 기록한 『노후를 위한 집과 마을』(2014) 사례는 참조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책의 부제는 ‘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다’이다. 핵심은 집과 마을을 연결하는 생활방식에 있다. 책에는 세 가지의 모델에 따른 16개 사례가 등장한다. 자신의 집을 마을에 개방하는 경우, 마을에 또 하나의 집을 만드는 경우,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집을 만드는 경우가 그것이다. 노년의 삶과 사회를 보장하려면 먼저 문(門)을 여는 행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때의 문은 실재하는 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포괄함은 물론이다. 먼저 내 집의 거실을 개방하려는 거실혁명(livingroom revolution)이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혼자 살다 혼자 죽는 무연사회(無緣社會)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 해 평균 32,000명이 무연의 상태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이웃나라의 사정이 언제까지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대량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년을 보낸다고 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의 욕망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에 필요한 기반이 없고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이 점에서 노년의 새로운 양식(樣式)을 위한 시선의 전환과 문화예술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른바 노년의 멋론을 형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노년을 위한 집과 마을이 있는가 하는 질문과 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현재로서는 ‘아니오’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유토피아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순간이야말로 유토피아가 가장 필요한 때라는 말이 있다. ‘여기-천국(nowtopia)’을 위한 사유와 실험이 필요하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마을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안전한 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행정이 투입되고 재정이 집행되는 방식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정책사업 형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살아가기와 투쟁하기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 시절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을은 마을 사람이다”라는 슬로건에 함축된 의미를 더 생각하고, ‘여기-천국’을 구현하려는 다양한 문화적·예술적 상상력과 행동들의 결합이 필요하다.

(5) 노년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고, 세대 간에 소통의 문화적 공유지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노년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의 철학과 사업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인생나눔교실> 같은 정책사업이 환기하듯이, 젊은 세대와의 문화적 접점지대는 인위적 부양책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고립의 고리에 있는 노년층을 비롯한 특정의 고위험군만을 처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세대 간에 문화 공유지대를 형성하는 일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결국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고,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 안의 척도를 바꾸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서 지방문화원 차원에서 국내의 온갖 ‘사례’에 현혹되는 대신에, 저마다의 ‘사례’를 직접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일본의 시각장애인 미술관인 톰 갤러리의 무라야마 하루에(村山治江) 관장은 “우리 맹인들도 로망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장전으로서 펍 올림이 있는 표현이다. 장애인을 정의할 때, 뭔가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디스어빌리티(disability)의 관점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의미하는 임페어먼트(impairment)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사회는 문제가 많은 사회이다. 이 점은 노인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서도 동일하다. 장애인을 정의하고, 노인을 규정하는 우리들의 언어 사용부터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 또는 노인을 규정하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존재하는 심연과도 같은 간극을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노년은 아름답다. 공부하는 노년이 아름다운 이유는 출세하기 위해 하는 공부가 아니고, 나를 위한 공부이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뭘 어떻게 배울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선택한 행동들이 지금의 나를 이룬다는 관점은 노년의 교육에서 특히 중요한 것 같다. 이때 앞으로의 인생설계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총론’ 식의 교육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사진이든 춤이든 자서전 쓰기든 간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각론 강박증’을 몹시 앓았다. 노년에 배워야 할 진짜 배움은 ‘나는 나

를 어떻게 대했는가?’ 같은 큰 질문이다. 그것이 바로 내 존재 자체로 목적 되기를 경험하는 경지가 될 법하다. 우리 사회는 ‘노인이 되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꼰대’ 말고 ‘꽃대’가 되기 위하여!

꼰대 말고 꽃대

영화 <할머니 배구단>을 아시는가. 지난 여성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어 잔잔한 화제를 모은 노르웨이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등번호가 자기 나이인 배구단이다. 인터넷 구글링으로 경쟁 상대를 검색해 스웨덴의 할아버지 배구단과 맞짱을 뜨는 내용이 나온다. 98번을 단 최고령 할머니 선수의 활약이 눈부시다. 배구단 창단 10주년을 맞아 찍은 기념사진에는 할머니 배구단 선수의 상당수가 바뀌었다. 그리고 신인들이 등장해 빈자리를 채운다.

나는 아직 <할머니 배구단>을 보지 못했다. 기회가 닿으면 이 다큐멘터리를 꼭 보려고 한다. <할머니 배구단>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고 큰 재미와 감동을 느꼈다. 이런 멋진 노년의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것일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무용가 안은미가 할매·할배들과 막춤을 추며 노는 프로젝트인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났다. 제목부터 과격적이고 도발적인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프로젝트는 지난여름 프랑스 유수의 축제에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 할매 댄스단원들이 타고난 춤 솜씨를 만방에 과시했다. 보통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춤판을 연출하며 노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어젠다를 생각하게 하는 안은미의 노련한 안무 솜씨가 숙수(熟手)의 경지를 뽐낸다. 춤추기 전의 할매와 춤을 춘 후 할매의 삶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엊그제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잘 노는 노년을 허하라’ 워크숍에 참여해 안은미가 하는 작업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세대간 문화다양성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안은미는 인생 이모작 시대를 맞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한 시대의 문제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이날 기억에 남는 안은미의 멘트는 “신명은 학교에서 배우는 춤에서 오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학교교육에서는 사회와 소통이 전혀 안되는 춤을 배운다는 의미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참가자들과 함께 춤을 배우는 시간도 진행되었다. 나이트클럽 출입을 끊은 삼십대 이후 타고난 몸치 상태를 마냥 방치하고 있는 나 또한 춤동작을 따라 하느라 땀을 제법 흘렸다. 몹시 신명났다.

우리나라에 노년의 문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노년의 문화 하면 소위 ‘꼰대’ 이미지

가 먼저 연상되는 것은 무슨 까닭이람. 어쩌면 꼰대의 문화는 나와 같은 중년 세대는 물론 노년 세대의 견고한 문화적 문법을 형성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노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연하며 시대 모순의 핵심은 외면한 채 조화사회 운운하는 헛소리를 해대는 원로들을 자주 목격한다. 최후의 순간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멋진 말년의 양식(late style)을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꼰대로 대표되는 노년의 문화적 문법을 바꾸어야 한다. 노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노인 존재로 보려는 시선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년을 밥에 머무는 복지정책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로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노년 스스로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젊게 늙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내 노년의 미래가 이른바 ‘가스통 할배’ 이고픈 생각은 전혀 없다. <할머니 배구단> 같은 멋진 ‘꽃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멋진 꽃대로 늙어가고 싶다. 이제부터 준비하면 된다. (* 출처 : <한겨레> 2014년 11월 1일)



**경기도 어르신사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1. 들어가면서

이번 어르신 기획자교류지원사업을 통해 목표한 것은, 첫째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국고지원을 통해 추진했던 어르신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과, 둘째로 사업추진 10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은 이러한 컨셉의 사업방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형태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며, 연합회는 이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 동 사업의 지역 간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시도연합회의 위상 정립 및 시스템 구축
- 자문기구와 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지역기획자역량강화
- 지역별, 권역별 사업추진현황파악과 동 사업의 이해도 증대를 위한 사업배치
- 우수사례개발과 성과관리를 통한 동 사업의 확장 가능성 모색

이다.

이에 따라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파일럿 모니터링을 통해 각 지역별 사업을 파악하고 1차 워크숍을 통해 기획자들과 함께 경기도의 어르신사업에 대한 방향모색을 하기에 이른다.

이 글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모니터링, 1차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사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도연합회 차원의 '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그런데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및 기관에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이미지와 외부에서 보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간극이다.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연합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지방문화원의 한계를 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이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다.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문화원’ 하면 <어르신>사업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도 지방문화원에서 보는 어르신사업은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며, 마치 못해 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문화원에서 대하는 태도는 현저히 소극적이다.

연합회에서 부탁하니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기도 귀찮은 그런 일이다.

그러니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문화원=어르신사업>이라는 공식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어르신사업 수행능력’이 문화원의 역량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지난 2015년 10월 21일 한문연 부설 정책연구소가 주관한 <2015지방문화원발전포럼>을 통해 충남연구원에 의해 발표된 <지방문화원의 현황과 발전>이라는 자료 중 전국 228개 문화원의 인프라 분석에 의하면, 평균 3명의 직원이 연간 수행하는 사업의 개수는 평균 40여개에 육박한다.

즉 한 달에 3~4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균 수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그러니 지역문화원에서 보면 <어르신사업>이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사업의 맥락이며 방향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나가 끝나면, 다음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 사업을 할라 치면, 정산이 기다리고 있고, 행정감사다 총회다 이사회다, 지역신문에 한 번 말쑥 기사라도 나올라 치면

‘에라이!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욕먹고 하고 있어?! 그렇다고 급여가 많아? 에잇!’

문화원 직원이 하는 얘기다.

자! 힘드니까 접자?! 라고 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다.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사업추진 시스템을 정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맥락을 연결하는 것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도연합회가 현황을 분석하고 사례를 연구하는 일을 대신 해주고, 기획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교류네트워크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

어르신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된 지 10년이다.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앞서 얘기한 방법으로 10년을 노력했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후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수립해보자는 것이다.

2. 어르신사업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황

먼저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을 검토해보면, 공식적인 사업명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정의를 “고령화시대 어르신세대의 여가 기회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1) 어르신 문화향유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고령화시대 어르신세대의 여가 기회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방문화원 문화거점화

- 지방문화원을 노인사회문화예술교육의 거점센터로 육성
- 생활예술동호인의 전국적 확대 추진

3) 세대/계층간 소통과 공감

— 어르신 중심 맞춤형 예술교육에서 인문학, 청소년참여, 마을기반 프로그램 등의 확대를 세대간, 계층 간 소통과 공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업 발전 전략으로는

단기전략(1~3년) : 도입 및 성장단계, 어르신의 여가 기회 및 문화향유 증진, 사회참여 활성화 단계

중기전략(4~5년) : 동아리 활동, 사회적 기업화 등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문화예술활동(단체)을 운영하는 경쟁력 강화단계

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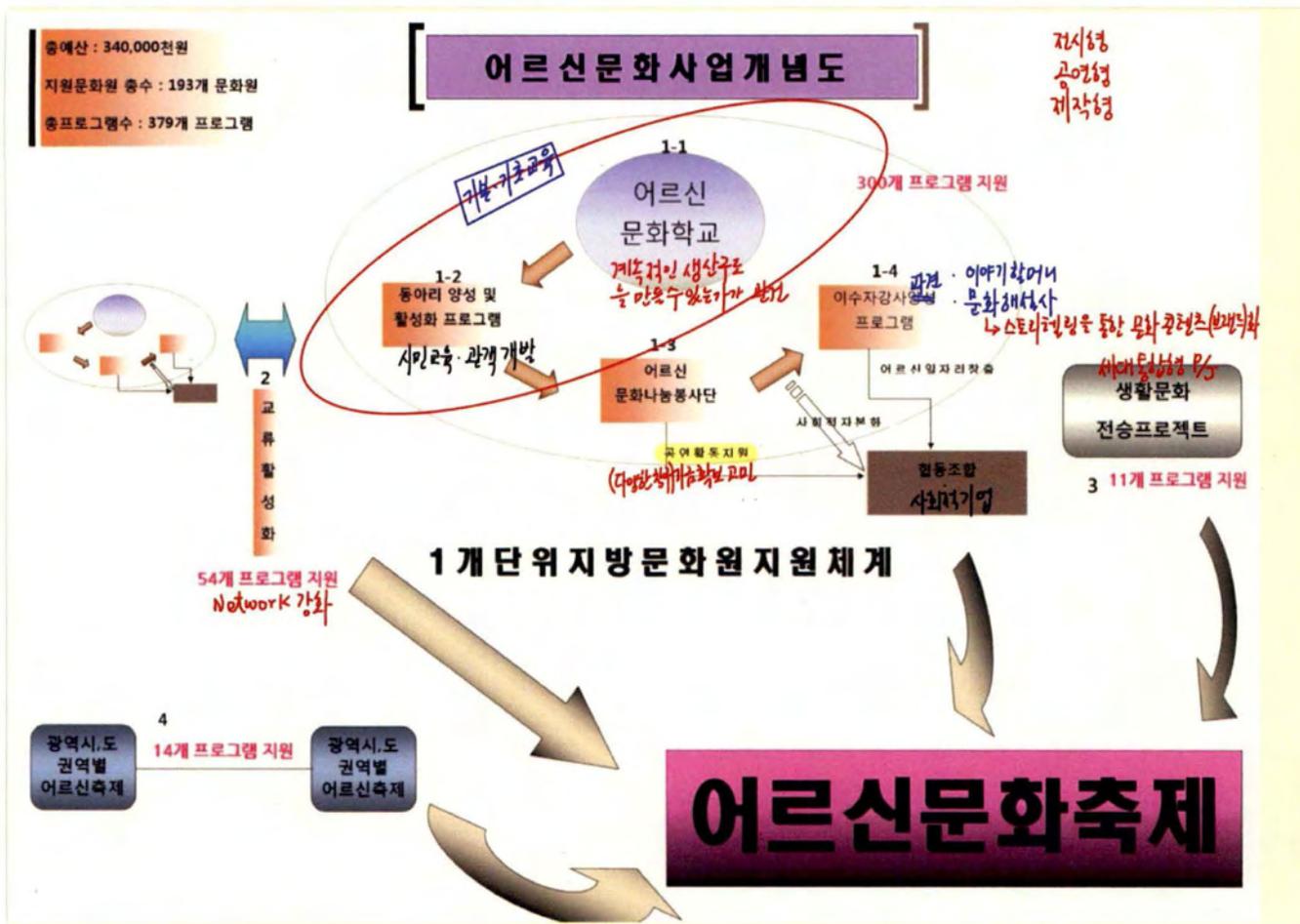
앞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총10개의 세부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I 세부 단위사업 I

- 2014년부터 **우리마을문화로꾸기, 세대공감한마당, 어르신인문학소풍 사업이 추가** 진행됨
- 총 참여 문화원/단체 수 및 프로그램 수는 2013년 193개 문화원, 379개 프로그램과 비교해 다소 늘어난 수준으로, 2014년 313개 단체, 433개 프로그램 진행

No	단위사업	사업장소	참여자	내용	프로그램수		비고
					2014	2013	
계					433	311	
1	어르신문화학교	문화원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145	154	
2-1	찾아가는어르신문화학교 -전문강사파견	문화원 외무 (문화소외지역)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16	28	
2-2	찾아가는어르신문화학교 -이수자강사파견	문화원 외무 (문화소외시설, 학교 등)	전세대 (어르신등)	문화예술교육	8	5	
3-1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문화원 외무 (축제, 문화소외시설 등)	어르신	문화재능기부	56	70	
3-2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문화시설(기관) 및 문화소외 시설 등	어르신	문화재능기부	22		외부 공모
4	어르신문화동아리	문화원 내외	어르신	문화예술활동	56	43	
5	어르신생활문화전승	해당마을	마을주민	근현대 마을문화 컨텐츠 개발 및 전승	10	11	
6	세대공감한마당	문화원	전세대 (어르신등)	문화예술교육	12		신규
7	우리마을문화로꾸기	해당마을	마을주민	문화예술교육	7		신규
8	어르신인문학소풍	문화원 내외	전세대 (어르신등)	인문학, 마을공동체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8		신규
9	농어촌신바람놀이문화	농어촌마을	전세대 (어르신등)	전통예술 문화회복을 통한 마을공동체문화구축	75		외부 공모
10	권역별 어르신문화축제		전세대 (어르신등)	어르신문화교류축제	18		

다음 그림은 지난 2013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자문회의 결과 그동안 전개되었던 <어르신문화사업>에 대한 추진 개념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해 기초적 문화예술교육의 체험과 습득을 통해 동아리화하고 어르신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의 어르신문화나눔봉사를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1개 단위 지방문화원 지원체계였다.

□ 2015년 경기도 지역 어르신사업 현황표

구 분	총지원예산액	사업갯수
어르신문화동아리	39,250천원	16
어르신문화활동가양성	170,300천원	23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145,900천원	17
어르신문화활동네트워크	10,000천원	2
어르신문화콘텐츠	25,000천원	2
어르신일자리지원	20,000천원	2
계	410,450천원	62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지역 어르신사업은 동아리사업-활동가양성사업-문화나눔봉사단 사업의 3개 프로그램에 거의 올 인(All-In)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의 면모를 들여다 보면, 동아리 사업보다 활동가에 어울리는 사업이 동아리 사업에 편성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문화활동가양성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 보이기도 한다.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과 생활문화전승프로젝트 형태의 기획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지역어르신동아리(평생학습동아리, 복지관 동아리 등)를 연계한 프로그램일뿐 지역과 지역이 연계된 네트워크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여행이나 답사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사업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어르신 문화동아리 사업은 강사중심의 강좌운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르신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어르신에 대한 현황, 욕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 기획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누군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의한 즉흥적 사업아이템 선정에 따라 전후 맥락에 관계없이 동아리 사업에 넣기도 하고, 활동가 부분이 사업비 규모가 크니 그쪽으로 신청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해도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된다.

사업의 맥락이 헝클어져 있으니 정산이 잘 될 리가 없다.
그러니 연합회 차원에서는 정산교육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다.
이것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현재이다.

지난 1차 자문회의를 통해 몇 가지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소개하고자 한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및 문제점

단위 사업별 구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어르신 사업에 공적 예산을 투여하였기에 사업의 결과로 지역적 파급 효과가 있어야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음. 어느 단위 사업이든 지역 사회와 맞닿아 있어야 함. 각각의 사업을 기획자가 엮어낼 필요가 있음. 즉, 지역의 문화 지형을 읽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허브 기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수혜자-공급자’의 맥락에서 일부 ‘수혜자’만 지원받고 있다. 복지는 수혜라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자발성을 강조하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한다.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한다. 자발성이 있는 동아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동아리, 투 트랙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이 없거나 끌어들이기 힘들다.

문화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시행되며, 양적 성장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애초의 기획의도, 자발성 등이 사라지고 형태만 보급이 된 상황임. 정신은 빠지고 형태만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기획의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 기운을 희석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문화 기관에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획이나 관점을 갖기 어렵다. 복지와 문화의 소통, 연계가 필요하다.

기획마인드가 퇴색되면서, 창조하는 힘은 줄어들고, 카피하는 힘만 남아 무늬만 남았다. 프로그램에 투입만 하는 것 같다. 복지관도 급하게 예산을 써야하고, 업무가 과중되며, 문화에 대한 관심, 소양을 가진 전문가가 없어서, 일단 ‘투입하고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투입되고 소멸되는, 경험이 축적이 안되고 있다.

어르신의 만족도는 높는데, 정확한 수요도 조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등의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오랜 활동으로 질적으로 성장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또한 기획자의 역할이다.

새로운 노년층의 문화적, 생애적 특징이 달라지므로 기획의 관점이 달라져야한다.

어르신 사업의 방향

by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역량, 의미, 노하우가 있는 동아리에 사업의 방향을 잡아 준다든지, 총 지원 사업 중 by로 기획된 사업쿼터제를 시행한다든지 지원 필요.

‘수혜자-공급자’ 맥락을 깨야함.

3세대 융합, 시니어-기획자 연결, 단순히 객관화가 아니라 by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3. 문제제기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난 10년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구도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첫째, 동아리와 활동가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활동가 사업의 맥락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1. 시민기획역량부문과 2. 적정기술, 숙련기술을 활용한 사회나눔프로그램의 개발 3. 양성된 동아리들의 네트워크사업의 자체 기획이 가능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세대가 융합하고 통합된 형태의 사업을 담아내기가 어렵다.

예를들어 “수의만들기”프로그램은 3대 가족이 모이지 않으면 눈에 띄는 성과를 보기 어려운 사업이다.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아들(딸)이 함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가족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례말이다.

셋째, 우선 문화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역 어르신의 현황과 욕구,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사업선정, 추진, 정산의 과정이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5월에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할라치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주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짜리 사업이다.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반년은 쉬어야 한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청하면 무슨 사업이건 선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자.

우선 모니터링과 자문회의, 1차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차 워크숍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향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 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안(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심화시켜 향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4. 제안

베이비 붐 세대가 실버세대로 편입되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욕구와 지향이 변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 붐 세대가 원하는 것⁴⁾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아이템을 제시하고 있다.

- 1) 건강 : 육체적 건강 + 정신적 건강 추구
- 2) 가족개념의 확장 : 봉양 -> 원거리 봉양 (효 개념의 확장)
- 3) 여가 : 단순한 휴식이 아닌 능동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여가 활동 선호
- 4) 사회참여 : 수혜대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고, 베품, 나눔, 지원 활동을 추구하기 시작
- 5) 디지털라이프 : 아날로그에서 디지로그형 라이프스타일 향유 욕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을 잡고 있다.

우선 기존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구도에 수용되지 못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 개의 키워드를 설정해 봤다.

□ 핵심키워드 :

1. 세대통합
2. (탈 장르, 탈 부문이 전제된)네트워크

4) 삼성경제연구소 2012.10월호 <실버세대를 위한 젊은 비즈니스가 뜬다>연구보고서 참조.

□ 사업아이템 제안

1. 개인의 삶이 마을의 삶이다.
 - _ 아카이빙 (구술사, 마을박물관사업)
 - _ 지역특성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발전
2.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문화예술활동 전개
 - _ 꽃 보다 할배같은 여행프로그램 (창의적, 크리에이티브한 기획)
3. 적정기술, 숙련기술을 활용한 사회나눔 프로그램의 개발
 - _ 문화예술부문만이 아니라 조직운영, 관리, 재무, 실용기술 등을 폭넓게 적용한 사례 개발
4. 문화예술부문 외 비즈니스, 산업, 서비스, IT 등과 연계된 탈 장르 네트워크사업 개발
 - _ 어르신 홈쇼핑 등

5. 맺으며

경기도지역 동사업 현황을 보면 모 문화원에 <어르신짚풀공예>프로그램이 있다.

()짚풀공예라는 프로그램의 빈 공간에 당당하게 (어르신)짚풀공예라고 쓰고 있다.

기획을 한다는 것은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르신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자하는)짚풀공예라는 형태의 사업기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단순한 사업에서 기획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업의 맥락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사업추진의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난 10년간 구조화된 구도에서 담아내기 어려웠던 두 개의 키워드, 즉 세대통합이라는 관점과 확장된 개념의 네트워크 사업의 형태로 어르신사업의 전개가 가능해졌으면 한다.



**어르신 사업의 담론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윤한택

역사가, 문자연구가

1. 2016 문화정책과 어르신 사업

1.1 2016 문화정책의 방향 : 문화융성(2015.8.18 문체부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 전통문화유산과 보유자산 세계화 : 한국인의 뿌리에서 찾는 국가브랜드(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및 문화영토의 확장,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세계기록유산, 무형유산, 한글, 전통꽃, 전통 친환경 건축기술, 한식, 한복, 한옥 등)

○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시너지 창출(민관협력 한류 영역 확대, 문화콘텐츠산업의 요람 ‘문화창조융합벨트’ 활성화<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아카데미, 문화콘텐츠콤플렉스, K-컬처벨리, 아레나형 케이팝 공연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재외문화원을 통한 한류세계화)

○ 문화향유 확대(문화가 있는 날 사업 확대, 세대별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실버세대 정책 강화, 추진체계 강화)

1.2 어르신 사업

○ 세대별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유아·어린이, 청소년, 청·장년층, 실버 세대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우선 유아·어린이 대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문화 디엔에이(DNA)를 심어주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시행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교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와 연계하여 맞춤형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문화가 있어 행복한 실버세대

문화향유에서 소외된 실버세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악기, 연극, 무용 등 실버세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실버세대 ‘1인 2기(문화예술 1개, 스포츠 1개)’ 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실버세대의 지혜와 ‘흥’을 전 세대가 나누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은퇴인력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을 확대하고 지역 원로 예술인이 공연단을 구성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문화융성의 배경과 어르신 사업 전망

2.1 문화융성의 배경

문화 융성의 두 가지 키워드는 개성과 창조이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세기까지의 결정론적 세계 체제 내부에서 새로운 비결정적, 확률적인 개체 단위의 창조도시가 진화해온 과정이 가로놓여 있다.

첫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모순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 세계분업체계가 붕괴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EU 등 블록화가 이 경향을 촉진시킴으로써 각 지역 사이의 수평적 네트워킹이 확대되었다.

둘째, 중앙집권적 관료기구의 비대화에 따른 경직성의 증대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지나친 민영화가 기존의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오면서 민관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셋째, 산업의 하이테크화, 정보화, 소프트화에 따라 기존의 소재 중심 산업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 걸맞던 포디즘에 대신하여 포스트 포디즘적 조직 경영, 문화지향형 산업정책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휴먼스케일의 공방형 기업이 지역 단위의 네트워킹형으로 결합하는 다품종 적량 생산의 유연한 산업 커뮤니티가 대안으로서 주목되었다.

그리하여 이행하고 있는 미래 세계관의 반영으로서의 창조도시는 문화적 개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산업별 연합체, ‘수평적 지역 네트워크로 연계된 문화산업 커뮤니티’로 출현한다.

그 실체는 경제와 환경을 고려한 지역문화 소우주인데, 그 속에서는 국가의 문화, 세계의 문화, 전통문화, 현대문화가 서로 융화, 공명, 상생하면서 미래를 지향하고 품격과 매력을 높여간다. 여기서는 예술가와 과학자가 자유로운 창조 활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기술자도 노동을 통하여 자기 삶을 실현시킴으로써 자기혁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며, 전체적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서민 수준의 일상생활을 예술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도시의 과학과 예술의 창조성을 지탱하는 대학, 전문학교, 연구기관, 극장, 도서관, 문화시설 등과 각종 기업의 권리를 옹호하고 신규 창업을 용이하게 하며 창조적 일을 지원하는 각종 협동조합과 협회 등 비영리섹터가 광범하게 확충된다. 정책적으로는 도시 주민의 창조력과 감성을 높이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개성적인 문화적 지역을 지탱하는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등 산업정책과 문화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2.2 어르신 사업 전망

문화융성의 배경은 다름 아닌 이행하고 있는 미래 세계관의 반영으로서의 창조도시이다. 그것은 문화적 개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산업별 연합체, '수평적 지역 네트워크로 연계된 문화산업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어르신 사업의 방향도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전망할 수 있다. 검토될 논점은 다음과 같다.

- 1)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
- 2) 사업 주체로서의 어르신과 세부 특성
- 3) 세대 간의 소통과 그 과정
- 4) 지역 자원 및 네트워크의 활용
- 5) 지역 커뮤니티 재생

이상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7월 희망제작소에서 발행한 <희망리포트 [2015-02]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New Life Cycle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중 V. 제언 부분(첨부)을 강독하며 토론해보기로 한다.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New Life Cycle -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중 V. 제언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사회변동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생애주기에 입각한 본 연구의 관점, 그리고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고학력·사무직·중산층 베이비부머들이 제2성인기의 생애과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지원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년제도, 연금제도, 고용구조 개선, 일자리 발굴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설계 및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도 그에 대해 일부 분석하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고령화와 관련한 지금의 정책 환경을 살펴볼 때 제3섹터가 지닌 장점, 즉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참여적인 특성이 국가적 차원, 혹은 공공 부문에서의 제도개선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래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보다는 시민사회 내의 비영리 기관과 단체, 다시 말해 제3섹터 부문에서 실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검토한다. 민간부문의 비영리 기관과 단체는 정부나 기업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과 수요에도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학습 환경 및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혁신 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일례로 스웨덴의 경우, 민간단체가 노년기 사회참여 문화의 중심점이 되어 각종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1:161). 희망제작소가 2006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일련의 프로젝트(생애설계교육인생 행복설계아카데미 등)를 기획, 시행한 내용들이 현재 관련 공공 기관과 지방자치 등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제도화 과정 중에 있다.

1. 프로그램 기획의 관점과 방향

1) 새로운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은퇴와 노년기에 대한 기존의 생애주기 관점을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전의 관점에 의거해 은퇴 이후의 삶을 ‘여생(餘生)’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정책은 나오기 어렵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을 보면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정책의 관점을 점검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의 경우 정책 수립 전에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시했고, 호주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치가 있으나 ‘아직 탐구되지 않은 자원’으로 간주하는 패러다임 전환을(정경희 외, 2011:77~78)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중년층은 물론이고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을 정책의 틀로서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한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NLC)은 50~60대를 제2성인기라는 새로운 생애 시기로 설정하고 노년기와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2성인기는 복지 수혜기가 아니라 이제까지의 삶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성장의 시기이자 인생의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는 창조 의 시기이다. 고령화 사회는 다세대 사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생애주기는 중년층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를 살아갈 모든 세대에 적용되어 정책이나 지원의 틀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여 새로운 생애주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 이런 관점을 먼저 적용하여 선도적인 지원책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생애주기 담론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 설계에 정책적 영감을 줄 필요가 있다.

2) 제2성인기 특성에 적합한 지원

제2성인기 중년층에 대한 지원은 이 시기와,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충분한 이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정책이 청소년기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듯이 제2성인기 중년층에 대한 지원도 그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그들의 인식과 욕구, 이 시기의 생애과제를 이해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욕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는 욕구가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의 생애주기 관점에 따르면 그들의 사회적 존재감이 쇠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고령화 시대에는 이러한 책임감을 지지·지원하여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성인기, 특히 중년전환기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충분한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심층면접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이 시기에 이들은 가치관, 삶의 목표, 자아정체성, 관계, 일 등 삶의 여러 요소에 대해 숙고하고 탐색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들 대다수는 제1성인기를 평생직장 개념 아래 보냈기 때문에 주도적인 경력 변화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다. 한 번의 시도나 경험으로 전환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2~3년, 길게는 5년까지 탐색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탐색 기간 전체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탐색을 위해 시간, 공간, 프로그램 등 전방위에서 정책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세대 간 이해와 협력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새로 등장한 첨예한 사회적 쟁점 중의 하나가 세대 갈등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다른 고령화 국가에 비해 사회변동 속도가 빨라서 세대 간 가치관이나 문화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욱이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고령화를 맞이한 탓에 일자리, 연금제도 등을 놓고 이미 세대 갈등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 다세대 사회의 출현이다. 심지어 시니어 세대 내에서도 세대 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했듯이 베이비부머들은 다른 세대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다만, 본인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주관적 인식은 다른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직장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고, 은퇴 뒤에는 직장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거의 사라진다. 때문에 다른 세대와의 접촉, 특히 젊은 세대와 접촉할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제2성인기 중년층이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여러 세대가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세대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모든 지원프로그램 설계에서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관점(세대 간 협력 인지적 관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서로 다른 세대가 접촉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지원방안 제안

: 프로그램 아이디어

앞서 설명한 지원 방향과 관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시민사회 영역의 비영리 기관과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2성인기 생애과정에 맞추어 살펴보고(그림 5-1), 다른 섹터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단계	숙고	재개발	전환
목적	새로운 관점 습득	▶ 새로운 경험 습득	▶ 행동의 변화 발생
전략	교육, 학습	다양한 시도, 체험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제2성인기 생애과정 단계적 접근

생애과정의 주요 단계를 참조하여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 즉 자아탐색 프로그램,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관계 재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의 방향과 전략,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자아탐색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① 취지 및 개요

제2성인기의 주요 생애과제 중 하나가 자아정체성의 재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통해 새로 맞이한 시기의 삶의 목표를 점검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세계, 이전 시기에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 상황을 보는 전혀 다른 시각 등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통찰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과 성찰에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은퇴 후 학습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아탐색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후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고 현재의 상태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치관을 가다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인문학적 교육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은퇴자들 대다수가 은퇴자 교육의 토대 교육으로 인문학 교육을 꼽고 있다. 따라서 삶의 패턴이 변하는 제2성인기라는 생애시기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자영업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반해 장년층의 자영업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중년층 은퇴자들은 무분별한 창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년층이 사회 및 경제 구조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이 삶을 기획하려면 새로운 흐름과 문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내용적으로는 사회 변화의 동향, 혁신의 사례, 새로운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체득할 수 있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주도적인 학습 훈련도 필요하다. 중년층들은 주도적인 경력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 잘 짜인 시스템 안에 있다가 은퇴를 통해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면 고립감을 느끼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역시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은퇴 후 학습에서 이러한 훈련을 해야 한다.

주도적 학습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제2성인기 중년층들의 학습 동기와 목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습 환경과 교육 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충분한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기 교육으로는 새로운 관점을 습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태도와 행동의 변

화로까지 연결되기는 매우 어렵다.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제1성인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해 보면 중년층이 한두 달 교육으로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생의 다음 단계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갭이어(gap year)⁵⁾를 참조할 수 있다. 갭이어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에 1년간 봉사, 여행, 진로탐색,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도 장시간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학습휴가 청구권’⁶⁾을 근로자의 권리로 제공하고 있다(나윤석, 2012).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학습휴가제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이 권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지원과 성과 측정에도 장기적 관점이 적용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개인도 사회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학습을 했으니 빨리 성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칫 새로 성장하려는 싹 자체를 자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정성원, 2015).

② 프로그램의 예

■ 인문학적 생애설계 프로그램

중년전환기 생애설계 프로그램은 은퇴 후 교육생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사회 변화에도 참여할 수 있는 창조성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인문 및 공공성 교육으로 기초과정을 구성하고, 제2의 생애 목표를 다양하게 상상하는 훈련을 갖는다. 두 번째는 심화과정으로 사회혁신 관련 교육을 통해 사회 동향에 관한 지식과 정보, 변화를 위한 방법론을 익히고 토론을 통해 자아정체성 및 생애 목표를 구체화한다. 이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정을 지원한다.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기초 및 심화 과정 각 3개월, 생애설계 2개월, 후속과정 1개월 총 10개월 과정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5) 현재 갭이어는 세계적으로 학생, 사회인, 직장인들의 학업과 직무능률을 올리는 제도임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점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문화로 세계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 6) 고용노동부는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이번 계획에는 근로자의 자기 개발을 돕는 학습휴가제를 도입하였다. 근로자에게 학습휴가 청구권을 부여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폴리텍대나 한국기술교육대 등에서 1년에 2개월가량만 교육을 받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현장학습제'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기간	3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1개월
단계	기초과정		생애설계	심화과정		생애설계	후속과정
구성 및 내용	인문 교육	공공성 교육	◎ 제2의 인생 상상	사회혁신 교육	토론 과정	◎ 제2의 인생 구체화	◎ 토론주제에 따른 학습 네트워크 구성
	◎ 은퇴 후 일상과 관련된 주제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강좌 구성 ◎ 공공성, 시민의식 관련 주제 ◎ 고령화 시대, 중년전환기에 대한 이해 ◎ 사회 경제적 변화, 변동에 대한 의미 이해	◎ 사회혁신의 의미, 트렌드에 대한 이해 ◎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슈를 정하여 토론 수업 ◎ 토론 내용 정리하여 각자 토론에세이 발표					

제2성인기 중년층을 위한 인문학적 생애설계 프로그램 예시

■ 중년전환기 지원 강사 육성 아카데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학력·사무직 중년층은 제2성인기에 일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으나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및 정보 부족으로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한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경우, 탐색 과정에서 만나는 매개자·조력자들을 통해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로 연결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탐색을 돕는 매개자·조력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이 매개자·조력자들과의 만남을 ‘우연’이나 운명’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아직은 이런 연결이 개인의 적극성, 또는 우연하고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매개자·조력자와의 연결망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환기 중년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강사 및 스텝을 육성하는 아카데미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성인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대상자들과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므로 남들보다 앞서 탐색과정을 경험한 시니어들이 적절한 교육 대상자라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 영역의 시니어 및 베이비부머 관련 업무 부

서에 시니어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상담이나 서비스 업무 담당자로 같은 세대인 중년층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강사 육성 아카데미는 단순히 교육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후 중년층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안을 함께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섹터 간 협력, 즉 공공 부문과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며, 이는 중년층 일자리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2) 새로운 일의 경험: 인큐베이팅 및 체험 프로그램

① 취지 및 개요

제2성인기에 새로운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예컨대 영리기업에서 일하다가 비영리 섹터로 전환할 경우 일을 하는 방식이나 문화가 달라서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앙코르(Encore.org)는 앙코르 펠로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들이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이 새로운 일자리에 통용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탐색에는 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체험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담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생애주기에서는 50세, 즉 제2성인기의 중년전환기에 청소년기와 유사한 생애 과정이 나타난다. 자아에 대한 탐색이 다시 시작되면서 자신의 흥미와 취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진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일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재미와 흥미를 가장 먼저 꼽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와 관심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탐색한 일을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성공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참조할 사례가 많아지면 전파와 확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실제로도 베이비붐 세대들은 가장 원하는 콘텐츠로 '롤 모델을 보여주는 내용'(신경아 외, 2013:132)을 꼽고 있다. 자신들이 흥미와 열정을 느끼며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둘째, 공공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 고학력·사무직 베이비부머들은 사회공헌 활동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실천을 해

본 경험이 많지 않고, 어떻게 시도할지 몰라 포기하거나 단발성의 시도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가능성과 잠재력이 확인된 만큼 사회공헌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지속성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예

■ 시니어드림 현실화 프로젝트

시니어드림 현실화 프로젝트는 공공의 이익과 연계되는 자아실현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에 옮겨봄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중년층의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다. 우선 중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성격의 버킷리스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를 함께 실행할 청년을 모집하여 팀을 구성하고 3개월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중년층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개척·발굴하며, 롤 모델 워크숍을 통해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꾀한다.



예비단계	시작	인큐베이팅 단계	확산 단계
버킷리스트 아이디어 공모 + 아이디어 구체화 작업(교육 및 숙성 워크숍)	팀구성 (청년과 함께 구성) 및 팀 빌딩	3개월 직접 실행 + 발표회	롤 모델 워크숍

시니어드림 현실화 프로젝트 프로세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자아실현 욕구를 동력으로 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니어 세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대와 일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시니어 자문 그룹과의 관계를 통해 같은 세대와의 교류도 경험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2013년부터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통해 시니어드림 현실화 프로젝트를 시

도하고 있다. 최종 선정되어 인큐베이팅 10주를 경험한 중년층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하고 싶었던 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해 봄으로써 자신감을 얻어 인큐베이팅이 끝난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한다. 물론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겪지만 그 자체가 또한 학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도의 과정 자체가 체험 교육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수요처 발굴 기획단 프로젝트

정부는 중년층의 사회공헌 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부터 사회공헌일자리사업⁷⁾을 시작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사회공헌일자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매칭의 적절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효과적인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일단 수요처가 충분치 않고, 수요처 개발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비부머들의 사회공헌활동 욕구가 높은데도 활동처가 부족하여 이들의 잠재력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수요처 발굴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중년층이 중심이 된 수요처 발굴단 운영을 방안의 하나로 제안하고자 한다. 중년층으로 수요처 발굴 기획단을 꾸려 이들이 직접 본인과 본인 세대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를 분류하고, 적합한 기관, 단체를 찾아보고 매칭하는 것이다. 기획단에 참여하는 중년층에게는 새로운 시도의 기회이며, 이를 통해 발굴된 수요처는 다른 고학력·사무직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수요처 발굴 기획단 프로젝트의 또 다른 목적이자 효과는 사회공헌활동 수요처 발굴 과정에서 중년층 특화 일자리 아이템 발굴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중년층 특화 일자리 아이템을 소개하고 발굴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으나 고학력·사무직 중년층의 욕구와 경험을 활용할 일자리 아이템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사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은 기업과 정부의 영역이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섹터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사회혁신의 관점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시민사회 기관과 단체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직하기에 수월하고, 생활세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밝고, 기존의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7) 희망제작소는 2007년 사회공헌입문프로그램인 행복설계아카데미를 통해 사회공헌일자리를 소개하였다. 정부는 2011년 7월 이후 사회공헌형 유급근로를 통해 생계 걱정이 없는 유후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 및 취업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방안을 기획할 수 있는 만큼 실험적 시도를 통해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중년층 특화 일자리 발굴을 위한 섹터간 협력 모델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도 은퇴자들의 사회공헌활동 무대로 적합하다. 최근 주민참여 예산제, 의정감시단,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지역주민이 지자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공간, 즉 주민자치위원회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참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활동 방식을 개발할 수도 있다.

■ ‘시민의 해(citizen year)’ 캠페인

한국 사회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존중되는(우국희, 2007:56) 문화가 아직은 성숙해 있지 않다. 사회공헌활동 욕구가 높은데도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은 데는 이런 현실도 작용하고 있다. 중년층의 사회공헌 욕구를 현실화하고, 공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중년층 사회공헌활동 캠페인’을 제안한다.

캠페인 방식으로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시티 이어(City Year)’⁸⁾를 참조할 수 있다. 중년전환기에는 탐색을 위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일정한 기간을 정해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는 경험을 해보자는 것이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적절한 규모로 실험해 보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수요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이 연대하여 캠페인을 벌이면서 참여자를 모으고, 적합한 활동처와 프로그램을 안내 및 매칭해 주고, 참여자들이 느끼고 깨닫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에 발신하는 것이다.

3) 관계 재정립(재구성): 세대교류 프로그램

① 취지 및 개요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젊은 세대와는 가치관이 달라 소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며, 소통의 기회가 별로 없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대 간 소통은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8) 시티 이어(City Year)는 1988년 초등학교생과 청소년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설립되었다. 창립 이념은 단순하고 혁명적이다. 요컨대, 17~24세의 젊은이들이 1년 동안 온전히 사회봉사에 헌신한다는 것이다. <http://www.cityyea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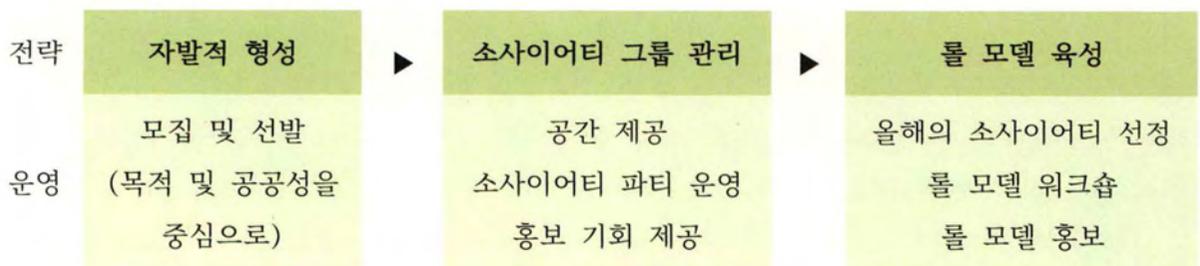
일단 세대 간 접촉의 양을 늘리고, 나아가 접촉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른 세대와의 접촉에는 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일종의 ‘고리’가 존재한다.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만한 고리는 ‘서로 배우기’ 모델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활동을 함께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높아진다. ‘서로 배우기’ 모델이 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프로그램의 예

■ 중년층 동아리(소사이어티) 육성 프로젝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들은 다른 세대와 협업하는 것을 같은 세대와 협업하는 것보다 훨씬 선호한다. 청소년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제1성인기에도 자기 또래와의 관계를 선호하는데 제2성인기에는 왜 다른 세대와의 관계를 선호하는 것일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선호와는 상반되게 실제로는 은퇴 후 대부분 동창, 동향 모임 중심으로 자기 세대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자기 세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와의 협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접근과 교류가 더 용이한 자기 세대와의 교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중년층 세대내 관계의 경우,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기획이 필요하다.

중년층 동아리 육성 프로젝트는 은퇴한 중년층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동아리(소사이어티)를 만들면 모임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홍보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멤버 모집을 도와주고, 주목할 사례에 대해서는 롤 모델 워크숍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소사이어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년층 스스로 그룹을 만들고 운영하되 지속성을 갖도록 지원하여 중년층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그룹들을 육성하자는 취지이다.



중년층 동아리(소사이어티) 육성 프로젝트 운영 방안

이와 관련해 일본 오타 시의 동창 모임(중년층 이상)이 만든 요로즈야 요노스케라는 NPO는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이 동창 모임은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는데 고향을 활기차게 바꿔 보자는 생각으로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시민 활동 활성화 모델 사업에 지원해 지역에 커뮤니티 카페를 열었다. '무엇이든 상담해주는 찻집'이라는 컨셉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으로서 영화감상회나 포크밴드의 라이브 공연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앙코르 커리어, 2015:234~240).

한국 중년층들도 은퇴 후에 동창, 동향 모임 참여도가 높아지지만 친목 중심인 까닭에 관계의 전환이나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만족도가 크지 않았다. 이를 감안한다면 소사이어티 촉진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친목 모임에서 탈피해 새로운 중년층 소사이어티 모델을 발굴,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 동아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모델 뿐 아니라 LA 지역의 플라톤 소사이어티⁹⁾같은 학습 동아리 등 그 목적과 방식이 다양한데, 이는 중년층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서도 은퇴한 중년층들의 소사이어티가 자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혜로운 학교(U3A 서울)'는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로 영국의 U3A의 가치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현재 5년째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¹⁰⁾ 다만 강좌를 개설할 공간의 부족 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의미 있는 자율적 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소사이어티가 활성화된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중년층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년층 스스로 자신의 세대에 대해 자부심,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세대공감 시리즈

인류학자 토레스 길(Fernando Torres-Gil)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게 될 주요 화두가 세대 간(inter-generation) 공존이라고 했다. 이는 제2성인기의 화두이자 생애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듯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 기회를 넓힐 방안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9) LA 지역의 UCLA를 중심으로 형성된 플라톤 소사이어티(Plato Society)는 은퇴한 50대 이상이 모여 지식공동체를 만들어 자율적인 세미나 형식으로 공부하는 학습 동아리이다.

10) 25) 지혜로운 학교 (U3A서울)에 대해서는 <https://www.youtube.com/watch?v=lcZvkdbRpmk>

지역 내 세대 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이슈를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세대 간 협력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지역문제 해결에 중년층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제2성인기 중년층들은 은퇴로 인해 위축된 사회적 역할을 새로 찾고 긍정적 자아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운영되므로 접촉의 양을 높이는 데 수월하고, 다른 세대가 만나는 고리, 즉 콘텐츠에 따라 다양한 버전으로 응용할 수 있다. 유사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Generations center¹¹⁾, 영국 Generation Together¹²⁾을 참조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에서 2013년부터 Generations Together Series를 통해 세대가 만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시리즈는 사회공헌(‘시니어드림페스티벌’), 커뮤니티맵핑(‘동네한바퀴’ 프로그램), 적정기술(‘사과캠프’) 등 콘텐츠를 통해 진행되었다. 참여한 시니어와 주니어(청소년)의 프로그램 전후 인터뷰를 비교해 보면 상대방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화상전화 등 새로운 원격통신 방식을 활용한 세대공감 프로그램도 시도해 볼 만하다. 한국의 시니어들과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해외 교포 2, 3세 주니어(관심 있는 외국인 주니어도 포함)들을 연결하여 정기적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주니어들에게는 모국의 문화, 역사,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니어와 주니어의 학습 매칭 프로그램 사례인 SAY¹⁴⁾를 참조할 수 있다.

■ 전환기 지원 센터

중년전환기는 여러 면에서 청소년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가장 주목할 공통점은 생애주기상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로 혼란과 위기를 겪고, 고민과 모색,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생애과제도 상당히 유사한데 모두 자아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양 시기 모두 탐색의 과정이 필요하다. 세대가 다르고,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비추어 볼 수 있다면 세대

11) 미국 위스콘신 주의 플리머스 지방에서 비영리단체 PIC(Plymouth Intergenerational Coalition)가 운영하는 센터로 올해 가장 훌륭한 세대간 커뮤니티 상을 수상한 곳이다. 이 센터에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의 취지는 매우 심플한데 나이 든 세대들은 그들의 지혜와 삶의 노하우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세대들에게 전수하고 젊은 세대, 청소년, 아이들은 다른 세대들에게서 삶에 필요한 기술들과 지혜를 얻고 건강한 어른들의 롤 모델을 얻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세대들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도 알게 된다. http://www.suwonedu.org/suwon/index.php?mid=issue&document_srl=82609&listStyle=viewer&page=4

12) 영국의 12개 지방자치단체 및 제3섹터의 자금 지원을 통해 세대 간 자원봉사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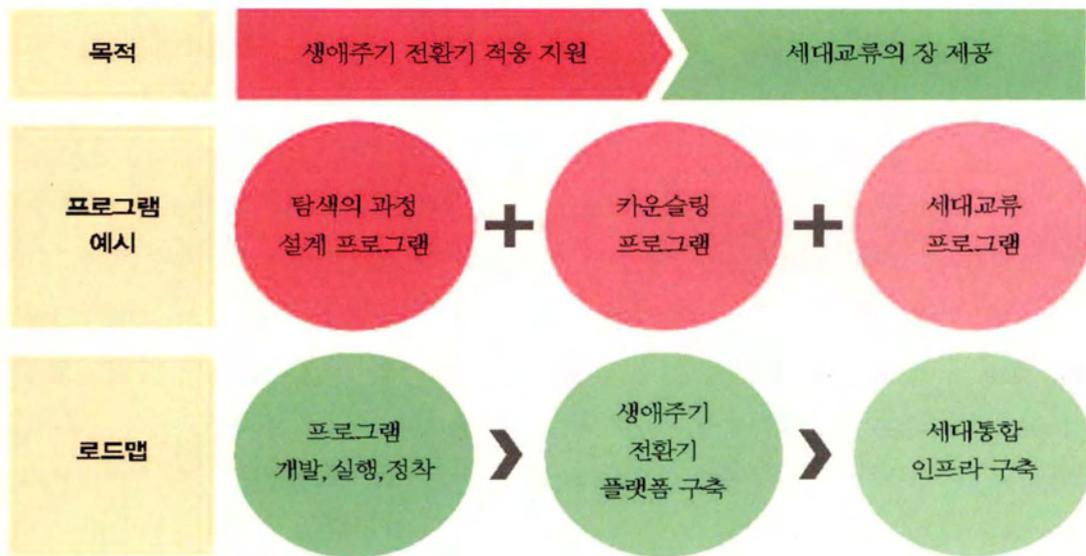
13)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영상: <https://vimeo.com/108080628>, <https://vimeo.com/116115001>

동네한바퀴 영상: <https://vimeo.com/92110500>, <https://vimeo.com/108312474>

14) <https://www.youtube.com/watch?v=K7expfhUx0g&feature=youtu.be>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환기 세대인 중년층과 청소년층을 함께 묶어 운영하는 전환기 지원 센터를 제안한다. 전환기 지원 센터는 청소년층과 중년층이 전환기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들과 중년층이 함께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늘 같은 공간에서 접촉하며 소통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고, 전환기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공통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고리도 존재한다. 중년층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때 이 센터가 유용한 공간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전환기 지원 센터 프로그램 및 로드맵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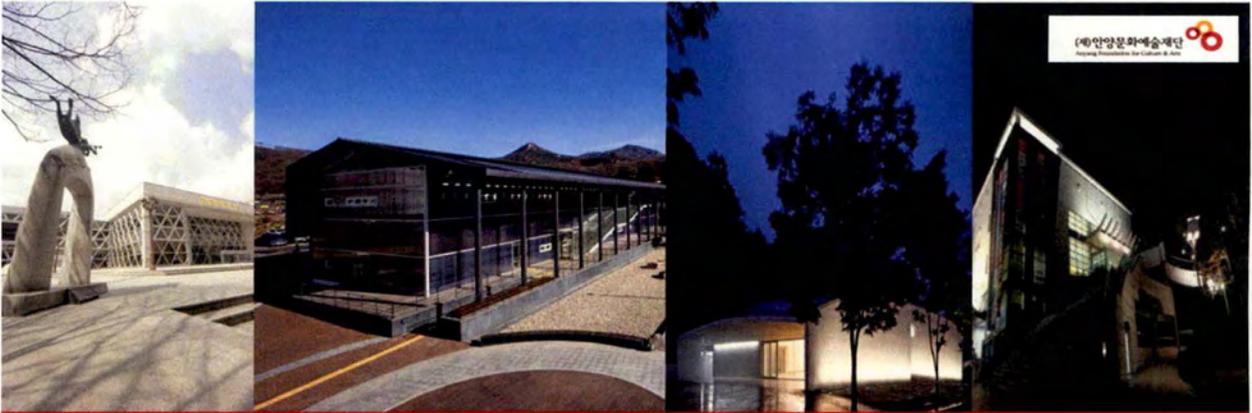
사례연구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ver.2

-세대 간 문화다양성 발굴 및 교류 프로젝트-

강주희

**안양문화예술재단
정책기획실 생활예술팀 과장**



(재)안양문화예술재단
Funding Institutions for Culture & Arts

11.10.2015

2015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ver2.

-세대 간 문화다양성 발굴 및 교류 프로젝트-

1. 추진배경

(재)안양문화예술재단
Funding Institutions for Culture & Arts 2 | 29

만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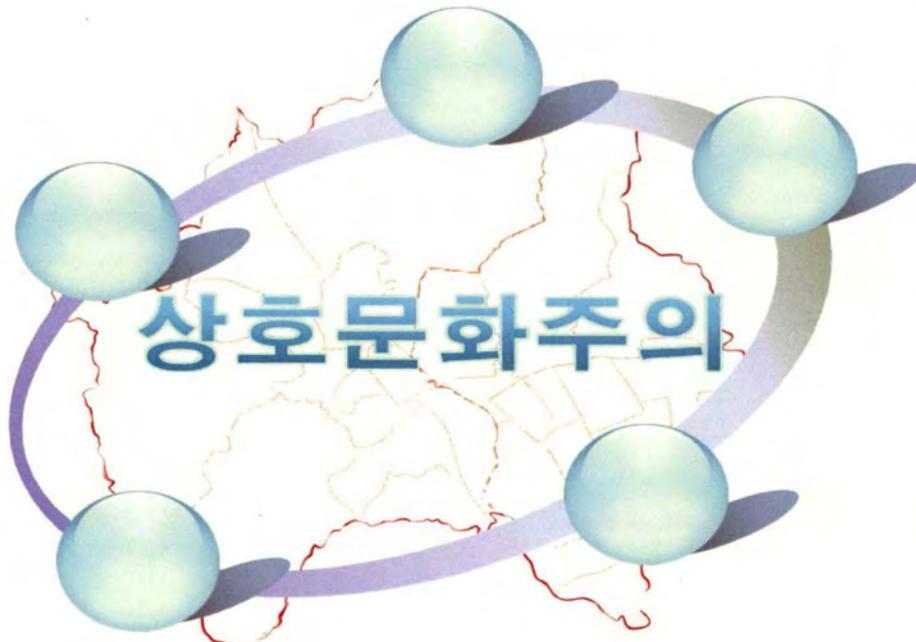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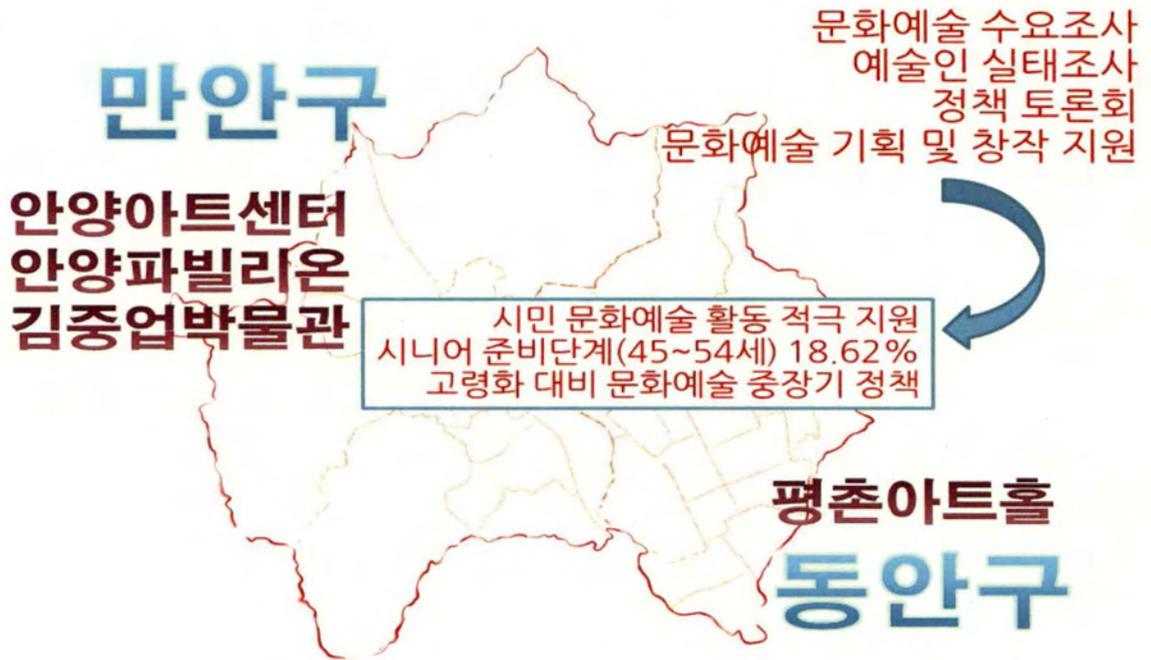
14개동
다세대주택
전통시장
지역대학
지하철 1호선
55세 이상 23.42%
65세 이상 10.61%

17개동
신도시 아파트
주요 관공서
학원가
지하철 4호선
55세 이상 18.48%
65세 이상 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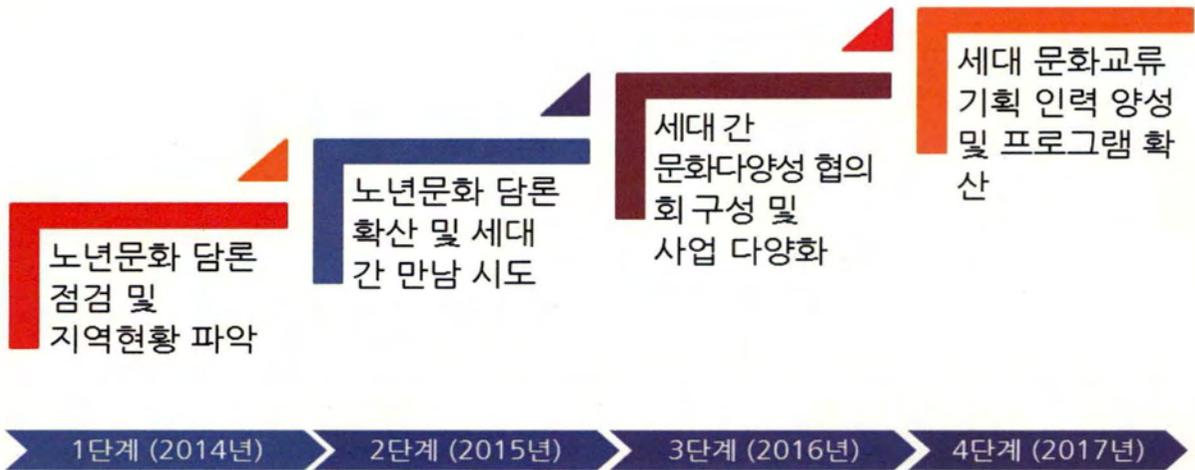
동안구

*55세 이상
안양 평균 20.51%
전국 평균 25.18% (2013.12.31. 기준)

*65세 이상
안양 평균 9.08%
전국 평균 12.16% (2013.12.31. 기준)



예술을 통한 세대 간 문화다양성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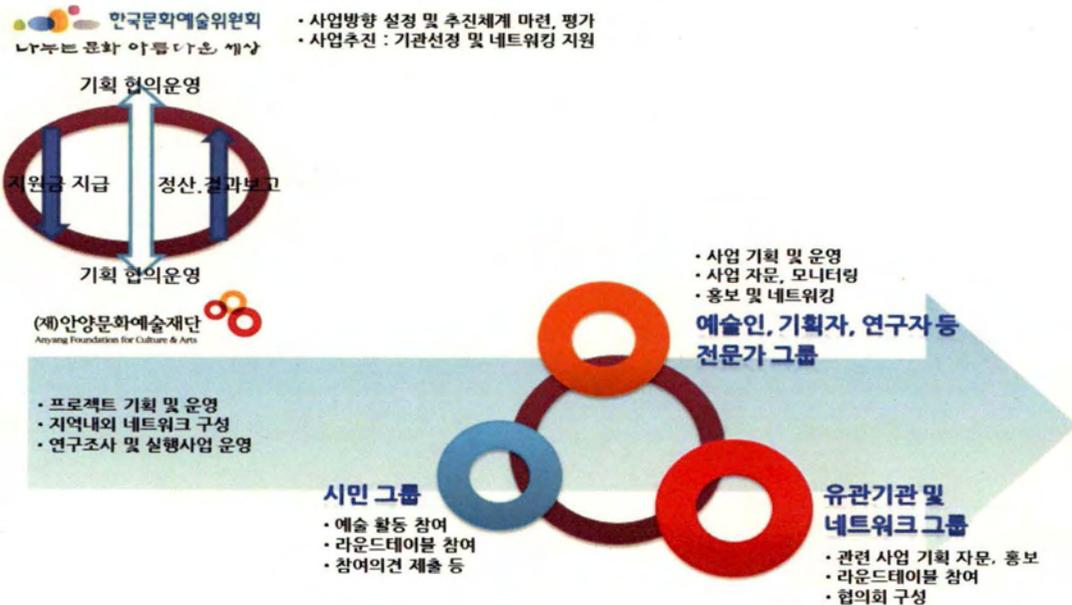
문화다양성 주제에서 세대 간 문화의 이슈 공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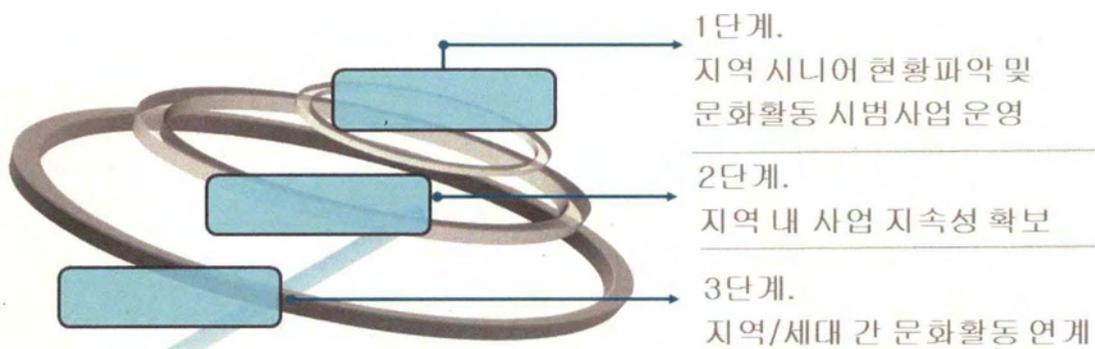
문화 주체로서 시니어 세대 인식제고

지역 환경에 따른 세대 문화모델링 및 확산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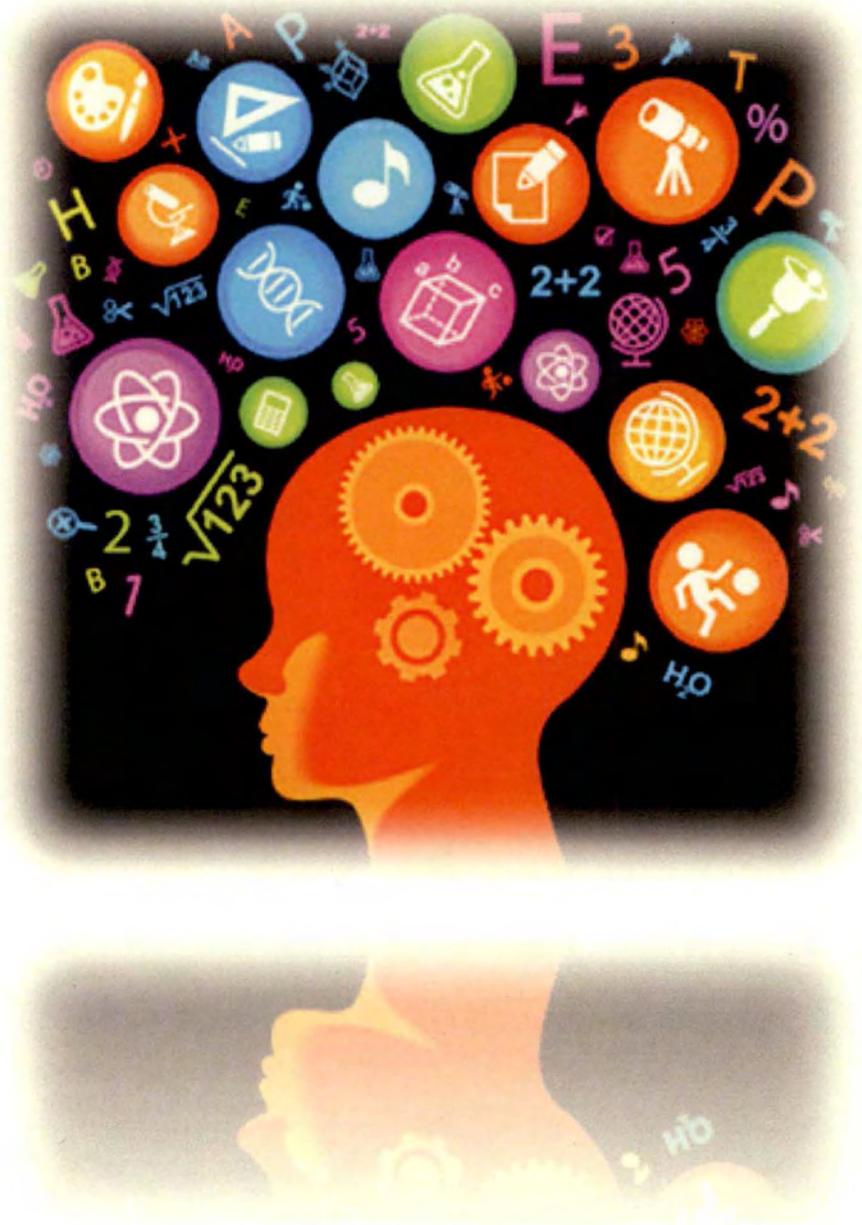
문화다양성 시민인식 확산





지역/세대가 교차하는
문화다양성 확산

III. 에필로그



여 백

1.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은.....

-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결국 지역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는 것을 얻어가는 것이다. 매년 연수나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토론하고 대책 등을 고민해보지만, 연수는 연수로 끝나버린다.
- 내가 본 것과 상대방이 본 것은 시각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서로 보고 느낀 것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서 치열하게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기회에 기획자가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모색하는 것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 그렇다. 이런 일체감은 경기도 전 지역에 우리를 지원하는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대단히 든든한 일이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



2. 사업추진의 과정과 의미에 관하여....

-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아픔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서로 어려운 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
- 1차 워크숍에서의 와인은 각별했다. 한 잔의 와인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간 것 같다. 와인을 술이라는 관점 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일종의 장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 어르신 프로그램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처음 듣게 된 것 같다. 보다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국 사업의 성과로 나타난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동안 일에 치여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어르신사업의 맥락을 다시 잡자라는 주제가 맘에 든다. 매번 회의 때마다 지역특성화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구현되거나 그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연합회 같은 조직이 없었다.

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 연합회 차원에서 큰 구도를 그리고 현장은 현장대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그동안 필요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이나 광역 차원에서 그리는 그림과 현장에서의 그림이 항상 공유될 필요가 있다.
- 현장에서의 어려운 부분이 중앙이나 광역 차원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르신 문화 프로젝트형 기획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프로젝트형 기획 사업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연합회에서 지원해 줘야 하고 지속적인 컨설팅과 소통을 통해 의견의 교환과 기획의 맥을 같이 잡아야 한다.
- 어르신 사업을 청소년에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한다. 어르신 사업이 세대 간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어르신의 삶의 방식과 몸의 불편함, 생각의 방식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세대통합형 기획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최영주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T e l 031-239-1020
F a x 031-239-3785
인 쇄 2015년 12월 15일
발 행 2015년 12월 31일
인쇄처 글그림

이 책은 '2015년 국고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